

몽골과 바다

박원길*

Sea and the Mongols

Park Won-Kil**

ABSTRACT

Mongolian is nomad people. But they recognized sea through some big lakes like Khobsgol or Kölen. Mongolian got into contact with Tibetan Buddhism in 16th century. After making religious connection between Mongol and Tibet, Altan Khan, a leader of Mongol gave Tibetan Buddhism's leader the name of Dalai-lama. Dalai-lama means big and deep like sea. The Mongols conquered their territory with nothing more than a few thousands of the best archers the world has ever known. According to the extension of the empire, the Mongols also tempted to extend toward sea. They wanted to connect Eurasian route with sea route for promoting world-wide trade. The symbol of jointing route is Khan-Balig, capital of Yeke Yüan Ulus. Khubilai Khagan and his successors selected a group of islands of the western sea in Korea dynasty to go into banishment. So a lot of noble Mongols arrived here and died. Tamra island was very especially connected with Khubilai Khagan. The early period of Ming dynasty, Mongol's Liang-wang and his family which resided in Winnan province were exiled to Tamra island.

* 칭기스칸 연구센터 소장

** Director, Research Center for Chinggis Khan Studies

Key Words Dalai-lama(달라이라마), Khubilai Khagan(쿠빌라이 카간), Yeke Yüan Ulus(대원제국), Khan-Balig(칸-발릭), Tamra island(탐라), 텡기스, 아랄, 헐력, 웅고츠, 대도, 예케-호타, 포수경, 대청도, 울릉도, 토곤-테무르, 양왕

국문요약

몽골은 유목민족이지만 바이칼호수나 헝스걸호, 헐런호 등 큰 호수를 통해 바다를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이러한 인식은 16세기 중반 티베트불교와 접촉하면서 티베트불교의 지도자에게 바다와 같이 깊고 큰 라마라는 달라이라마(Dalailama)라는 칭호를 선사한 것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몽골의 바다에 대한 인식은 그들이 세계 제국의 길을 걸으면서 유라시아 초원루트와 바다를 잇는 세계 순환 무역루트를 구축하려는 시도까지 발전했다. 그 상징이 바로 대도(Khan-Balig)이다. 대원올로스(Yeke Yüan Ulus)가 선호했던 유배지의 한 곳이 고려의 서해안 섬들이다. 이곳에는 몽골의 귀족들이 주로 유배되었다. 탐라는 코빌라이칸(Khubilai khagan)과 관계가 깊은 섬이다. 또 명초에 운남(雲南, Winnan)의 양왕(梁王, Liang-wang) 가족들이 이곳으로 유배되었다.

머리말

몽골이라고 하면 광대한 유라시아초원에서 거대한 유목제국을 형성한 민족이라는 관념이 먼저 떠오른다. 그리고 그들과 바다를 연상시키는 것이 무척이나 어색한 느낌이 든다. 과연 그럴까. 그들은 인류역사상 제 1 차 지구촌제국을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 걸맞게 바다와 육지를 이은 제국이다. 또 그들은 자신들이 바다를 부르는 용어인 달라이(dalai)далай를 세계인의 마음에 깊이 새겨 놓은 민족이기도 하다. 그것이 바로 바다와 같이 깊고 고결한 스승이라는 뜻을 지닌 달라이-라마(Dalai-Lama)이다.

대몽골제국은 무역과 교류를 통해 망한 나라는 없다는 중상주의 정책을 고수했던 세계통합제국이다. 또 이를 위해 잠치(Jamchi)라 불리는 통신·교통의 정보·군사고속도로를 건설했다. 잠치란 몽골어로 “길을 관리하는 자”란 뜻을 지니고 있다. 몽골이 건설한 잠치는 제국의 확장에 따라 카라코룸을 중심으로 서로는 흑해, 동으로는 북경과 운남, 남으로는 이란에 이르기까지 거미줄처럼 퍼져나갔다. 마치 부채꼴 모양을 연상시키는 내륙의 길은 코빌라이칸 때에 이르러 바닷길이라는 태두리를 씌움으로서 세계 순환 무역루트로서의 기능이 완비되었다. 그 상징이 바로 바다와 육지를 이은 도시 대도(북경)이다.

대몽골제국이 기획하고 구축했던 잠치는 인류사적인 관점에서 인류문명의 개방성과 조직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참으로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다. 잠치에 담긴 대몽골의 사상은 대원제국의 붕괴와 함께 사라져 갔다. 그러나 그것을 잊고자하는 시도가 동서양에 걸쳐 나타났다. 그 첫 번째가 명나라 영락제 때 행해진 정화(鄭和)의 대원정이다. 이 원정의 목적은 그 옛날 대몽골제국이 기획하고 실행했던 바닷길의 복원이었다. 정화는 그 옛날 몽골이 제국의 기축통화 확보를 위해 점령한 은의 산지 운남에 남겨진 서역상인 후예이다.

그러나 명나라의 꿈은 영락제의 죽음과 함께 끝났다. 그리고 그 꿈을 이어간 것이 유럽이다. 유럽인들은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을 통해 중상주의 제국 몽골의 사상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어느 날 사라져버린 이 제국의 행방을 매우 궁금해 했다. 그리고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훗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여 유럽의 세기를 열은 콜럼버스의 항해일지에는 몽골의 대칸인 코빌라이를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이라는 사연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다. 그때가 15세기 말이었다.

본고는 바다와 육지를 이었던 세계제국 몽골이 바다에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밝혀보고자 한 것이다. 특히 유라시아 초원루트를 완성한 몽골이 코빌라이칸 때 바닷길을 어떻게 구축해 나갔는가를 집중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 이 과정에서 당시 바닷길의 한 축을 이루고 있었던 고려가 몽골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또 무슨 역할을 수행했는가를 밝혀 보고자 했다. 그리고 부록으로 조선시대 여행기에 등장하는 몽골어부 마을을 소개하고자 한다.

1. 몽골의 바다에 대한 인식

몽골의 격언에 “대양의 수심은 깊고, 학자의 생각은 깊으며, 평화의 정책도 깊다(Их далайн ёроол гүн, эрдэмт хүний санаа гүн, энх төрийн бодлого гүн)”라는 말이 있다. 또 “물이 얕으면 말로 건너고 물이 깊으면 배로 건넌다(Ус гүехэн бол мориор туулна, хэрэв гүнзгий бол хөлгөөр гэтэлнэ)”라는 말도 있다. 이는 예부터 몽골인들이 바다를 잘 알고 있었다는 입증이기도 하다.

이러한 말을 남긴 몽골인들의 바다에 대한 인식은 무엇일까. 그 대략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바다에 관련된 언어학적인 접근과 종교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여 진다. 그러면 먼저 바다에 관련된 일상용어를 살펴보고 그 다음 바다가 지닌 종교학적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자.

몽골어에서 바다와 관련된 일상용어는 바다를 끼고 사는 민족들에게서 나타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많은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 그것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1. 언어학적 접근

먼저 고대의 몽골인들은 바다를 두 가지로 용어로 써서 나타내고 있다.

하나는 일반적인 바다를 뜻하는 달라이(dalai)ᠳᠠᠯᠠᠢ나 “광대한 바다”라는 뜻인 날라이-달라이(nalai dalai)ᠨᠠᠯᠠᠢ ᠳᠠᠯᠠᠢ라는 용어이다. 또 하나는 탱기스(tenggis)ᠲᠡᠩᠭᠢᠰᠢ라는 용어이다. 이 구분이 어디서 유래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그 사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달라이를 사용하는 예는 북빙양(umaradu mösü-n dalai)ᠤᠮᠠᠷᠠᠳᠤ ᠮᠣᠰᠦᠨ ᠳᠠᠯᠠᠢ), 태평양(nomukhan dölügen dalai)ᠨᠣᠮᠬᠣᠨ ᠳᠥᠯᠦᠭᠡᠨ ᠳᠠᠯᠠᠢ), 대서양(Atlant-yin dalai)ᠠᠲᠤᠯᠠᠨᠲᠠᠨ ᠳᠠᠯᠠᠢ) 등 일반적인 바다이다. 탱기스를 사용하는 예는 흑해(Khara tenggis)ᠬᠠᠷᠠ ᠲᠡᠩᠭᠢᠰᠢ나 바이칼호(bayikhal tenggis)ᠪᠠᠶᠢᠬᠠᠯ ᠲᠡᠩᠭᠢᠰᠢ 등 비교적 작은 바다나 큰 호수이다.

작은 바다나 큰 호수를 뜻하는 탱기스라는 용어는 칭기스칸의 영욕을 읊은 『몽골비사(Monggol-un Nigucha Tobchiyan)』 제 1 절에 다음과 같이 등장하고 있다.

칭기스칸의 근원은 위 하늘에서 [이미] 정해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던 버르테-치노이다. 그의 부인은 코아이-마랄이다. 탱기스[호]를 건너왔다. 오난하의 상원(上源)에 [있는] 보르칸칼둔[산]에 거주지를 정하고 [생활했다. 그리고 이들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던 [아들이] 바타치칸이다.¹⁾

이곳에 등장하는 탱기스호는 학자에 따라 바이칼호수나 헐런(Kölen)ᠬᠥᠯᠡᠨ)로 비정(比定)되고 있다. 오늘날 내몽골자치구의 헐런-보이르(ᠬᠥᠯᠡᠨ 부йр) 지구에 위치한 헐런 호수는 현재 “바다와 같은 호수”란 뜻의 달라이-노르(Dalai-nagur)호수라고도 불러 지고 있다. 즉 탱기스라는 명칭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달라이라는 명칭으로 흡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강의 명칭도 칭기스칸 시대에는 무렌(müren)ᠮᠦᠷᠡᠨ)으로 통칭되고

1) Chinggis Khagan-nu hujā'ur de'ere tenggeri-eche jaya'atu töregsen Börte-Chino aju'u. gergei inu Kho'ai-Maral aji'ai. Tenggis ketüljü irebe. Onan müren-nü teriün-e Burkhan-Khaldun-a nuntuglaju töregsen Batachikhan aju'u.

있었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다나 큰 호수로 흘러 들어가는 큰 강은 머런(мөрөн)으로 큰 강에 합류되는 강들은 골(goul)гол로 나누어 명칭을 붙이고 있다. 머런 칭호가 들어가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이칼이나 태평양으로 흘러들어가는 셀렝게강(Selengge müren)Сэлэнгэ мөрөн이나 흑룡강(amur müren)Амур мөрөн, khar-a müren)хар мөрөн이다. 그 밖의 강들은 올란바атар를 흐르는 툴강(Tu'ula goul)Туул гол처럼 모두 “~골”을 사용하고 있다.

위의 바다나 호수, 강을 표기하는 일련의 변화사례들은 몽골인들이 점차 바다를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지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고대의 몽골인들은 남회귀선(matar-yin Jam)матарын зам: 악어의 길과 북회귀선(melekei-n Jam)мэлхийн зам: 개구리의 길)을 명료하게 구분하고 있다. 또 그들은 제국의 확장에 따라 태평양과 지중해, 인도양 등 큰 바다나 카스피해, 흑해 등 마치 큰 호수와 같은 바다를 낀 나라들과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그들의 언어에도 바다와 관련된 구체적인 용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면 바다와 관계된 일반용어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첫째는 섬에 관한 명칭이다. 몽골인들은 섬을 아랄(aral)арал이라고 표현하는데 강들에 둘러싸인 곳도 아랄이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군도(群島)를 아랄-호이크(aral khoyig)арал хойг), 반도(半島)를 하가스-아랄(khagas aral)хагас арал)이나 호이크(khoyig)хойг)라고 표현한다. 또 대원제국(Yeke Yüan Ulus) 때 항해의 발달에 따라 산호섬을 시룬-아랄(sirü-n aral)шүр арал)이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둘째는 항구나 만(灣)에 대한 용어이다. 항구는 세관이 위치한 곳이란 뜻의 달라인-보움트(dalai-yin bogumta)далайн боомт)나 배가 정박하는 곳이란 뜻의 오산-웅고츠니-보오달(usu-n ongguchan-u bagudal)усан онгоцны буудал)이라 불렀다. 항구를 달라인-보트라고 부른 것은 상업세인 탐가(tamga)가 부과되는 곳이란 뜻에서 유래된 것이다.²⁾ 만

(灣)은 “바다의 입”이란 뜻의 달라인-암(dalai-yin am>далайн ам), 포구는 “바다의 방”이란 뜻의 달라인-볼랑(dalai-yin bulung>далайн булан), 연해(沿海)는 “바다의 곁”이란 뜻의 달라인-데르게데흐(dalai-yin dergedekü>далайн дэргэдэх), 해저(海底)는 “바다의 바닥”이란 뜻의 달라인-요로울(dalai-yin irugal>далайн ёроол)이라 불렀다.

셋째는 배의 명칭이다. 배를 부르는 칭호는 혈릭(kölge>хөлөг)이나 옹고츠(onggucha-n>онгоц[он]) 혹은 혈릭-옹고츠(kölge onggucha-n>хөлөг онгоц)이란 연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범선은 다르보울(darbagul>дарвуул), 강을 건너는 작은 배 즉 나룻배는 자비(jabi>завь)나 카탈가-옹고츠(gatulga ongguchan>гаталга онгоц)라고 부른다. 화물선은 아차아니-옹고츠(achiyān-u ongguchan>ачааны онгоц), 구조선은 아브라흐-옹고츠(aburaku ongguchan>аврах онгоц)라고 부른다.³⁾

넷째는 해군에 관한 명칭이다. 해군은 바다나 물의 군대라는 뜻을 지닌 달라인-체레크(Dalai-yin cherig>далайн цэрэг), 텡게신-체레크(tenggis-yin cherig>тэнгэсийн цэрэг), 오산-체레크(usan cherig>усан цэрэг), 텡게신-야브강-체레크(tenggis-yin yabagan cherig>тэнгэсийн явган цэрэг)라고 부르고 해적은 달라인-데에렘친(Dalai-yin degeremchin>

2) 탐가(tamga)와 상업세에 대해서는 줄저, 『유리사아 대륙에 피어난 야망의 바람-칭기스칸의 꿈과 길-』서울, 2003, pp.307-308을 참조.

3) 근대에 들어와 증기선이 출현하자 이를 “불을 지닌 배”란 뜻인 갈트-옹고츠(galtu ongguchan>галт онгоц)라 부르며 쉐렝게 등 큰 강에 운항하는 증기선을 머르니-갈트-옹고츠(мөрний галт онгоц)라고 표현하고 있다. 잠수함은 손가닥-옹고츠(singgudag onggucha-n>шунгадаг онгоц), 솜바닥-옹고츠(simbudag onggucha-n>шумбадаг онгоц), 손가닥-자비(singgudag jabi>шунгадаг завь), 솜바닥-자비(simbudag jabi>шумбадаг завь), 오산-도오고오르-야브닥-옹고츠(dogugur usan yabudag ongguchan>усан доогуур явдаг онгоц)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항공모함은 니세흐-옹고츠니-혈릭(nisekü ongguchan-u kölge>нисэх онгоцны хөлөг)라고 표현한다.

далайн дээрэмчин)이라고 부른다.

다섯 번째는 선원 등 뱃사람에 대한 명칭이다. 배의 선장은 옹고초치(ongguchachi)онгоцоч이나 자비치(jabichi)завьч이라고 부르는데 자비치에는 어부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선원은 텅게스치(tenggischi)тэнгэсч,⁴⁾ 항해객은 달라인-조울친(dalai-yin jigulchi-n)далайн жуулчин), 항해가는 달라이친(dalaichi-n)далайч[ин])이라고 부른다. 달라이친에는 어부란 뜻도 포함되어 있다.

이외 강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용어도 적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 그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뱃사공을 가탈락치(gatulgagchi)гаталгач이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에는 “구해준 사람”이나 “해방자”의 뜻도 포함되어 있다. 뱃사공과 유사한 말로 노지기가 있는데 이를 “노를 젓는 사람”이란 뜻의 셀루우르치(seligürchi)сэлүүрч이라고 부른다. 또 뗏목을 타는 뱃사공을 살를락치(sallugchi)саллагч이나 살친(salachin)салчин이라고 부른다. 뗏목으로 건너는 것을 살를라흐(sallaku)саллах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고대의 몽골족이 종종 뗏목을 만들어 도강했다는 증거의 하나이다. 몽골에서는 나루터를 가탈가(gatulga)гаталга라고 부르며 “작은 배로 건너다”를 자비아르-가틀라흐(завьяар гатлах)라고 표현한다. 가틀라흐(гатлах)는 한국어 “건너다”와 같은 계열의 말이다. 또 강의 깊이를 측정하는 사람 즉 잠수부를 손가아치(singgugachi)шунгаач이나 손각치(singgugchi)шунгарч이라고 부른다. 고대 몽골인들에게 강의 깊이를 측정하는 일은 말의 도강을 위해 먼저 행해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일의 하나였다.

여섯 번째는 배에 관련된 부속명칭들이다. 먼저 배 만드는 곳 즉 조선소를 옹고츠-히흐-가자르(ongguchan kikhu gajar)онгоц хийх газар이라고 부른다. 배의 키는 잘로오르(jalagur)залуур이나 고기꼬리를 뜻하는

4) 뱃사람을 뜻하는 마트로스(матрос)는 유럽에서 건너온 현대적 용어이다.

자가스-수울(jigasu-n segül) <загасан сүүл>이라고 부른다. 닻은 장고오(janggu) <зангуу>, 돛대는 쇼라크(sirug) <шугар>나 혈력-웅고츠니-쇼라크(kölge ongguchan-u sirug) <хөлөг онгоцны шугар> 혹은 웅고츠니-토라크(ongguchan-u turug) <онгоцны тураг>, 배를 고정하기 위한 철은 웅고츠니-더르(ongguchan-u dörü) <онгоцны дөр>라고 부른다. 뱃전은 웅고츠니-(자흐)-하르학(ongguchan-u (jakha) kir-akhag) <онгоцны (зах) хярхаг>, 뱃머리는 웅고츠니-톨고이(ongguchan-u tolugai) <онгоцны толгой>, 배꼬리는 웅고츠니-헛게(ongguchan-u ketüge) <онгоцны хэтгэ>라고 부른다. 노를 가리키는 단어로는 웅고츠니-하야고르(ongguchan-u khayagur) <онгоцны хаюур>나 하야고르(khayagur) <хаюур>, 셀부우르(selbigür) <сэлбүүр>, 셀루우르(seligür) <сэлүүр>의 3종류가 있지만 그 차이점은 명확하지 않다.⁵⁾

일곱 번째는 항해에 관련된 명칭이다. 바닷길을 “물의 길”이라는 뜻의 오산-잠(usun jam) <усан зам>, 항해를 “물의 길을 간다”는 뜻인 오산-잠인-야부달(usun jam-yin yabudal) <усан замьин явдал>이나 “바다로 간다”는 달라이가르-아알라흐(dalai-iyar ayalaku) <далайгаар аялах>, 달라이가르-야바흐(dalai-iyar yabuku) <далайгаар явах>라고 부른다. 항해불능을 웅고츠-야바흐구이(ongguchan yabuku ügei) <онгоц явахгүй>, 배를 띄우는 것을 셀레흐(selikü) <сэлэх>나 웅고츠-오산드-허버흐(ongguchan usan-d köbkü) <онгоц усанд хөвөх>, 정박은 장고오-하야흐(janggu khayaku) <зангуу хаях>나 웅고츠-족소오흐(ongguchan jogsugaku) <онгоцоо зогсоох>, 배를 끄는 것을 웅고츠-델베크레흐(ongguchan delbegelekü) <онгоц дэлбэглэх>, 배가 가라앉는 것을 웅고츠-지베흐(ongguchan jibku) <онгоц

5) 이들의 동사형은 각각 хаюурдах(노를 저어 배를 움직이다), сэлбүүрдэх(배를 짓다), сэлбэх(배를 짓다), сэлүүрээр сэлэх(노를 짓다), сэлүүрдэх(노로 배를 짓다)로 나타나고 있다.

живэх)라고 표현한다.

여덟 번째는 바다에 관련된 일반 용어이다. 만조나 조수는 툄헤에(tülkige-n)ᠲᠦᠯᠦᠭᠡᠨ], 암초는 오산-도르히-하드(usun dourakhi khada)усан дорхи хад)이라 부른다. 파도는 돌기웅(dolgiyan)долгион)이라 부르는데 “파도치다”는 돌기오토흐(dolgiyatuku)долгийотох), “바다가 파도로 거세다”는 돌길로흐(dolgilaku)долгилых)이라 표현한다. 몽골인은 유목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에 강이나 연못, 습지, 늪지, 마른 하천 등을 표현하는 용어가 매우 세분되어 있고 또 표현어도 매우 많다.⁶⁾ 이 중 한국어나 제주지명에 관한 것 몇 개만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어에서는 강을 가람이라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몽골어에서는 얄은 여울을 가람(garum)гарам)이라고 표현한다. 13세기 동부몽골 방언의 보고로 알려지고 있는 제주도의 지명에는 당시 몽골어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중 흥미를 끄는 것이 어승생이다. 이전 제주도를 방문했던 몽골어학자인 하칸츨로 교수는 “어승생은 저수지를 뜻하는 오스-상(usun sang)усан сан)이나 물이 좋다는 오스-생(usun sain)усан сайн)의 음역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제주지명 중엔 누루뭇이 있는데 이 말도 연못이나 인공저수지를 뜻하는 노오르막(nagurmag)нуурмаг)의 음역일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어로 및 바닷고기, 식물 등에 관계된 용어이다. 몽골어로 물고기를 자가스(jigasun)загас[ан]), 물고기를 잡는 어로행위는 자가스-바리흐(jigasun bariku)загас барих)나 자가스칠라흐(jigasuchilaku)заг

6) 몽골어에는 강이나 호수, 냇가 등 물의 성질에 따른 초지관련 용어정리가 몇 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매우 세분되어 있다. 유목생활을 영위하는 고대의 몽골인들에게 물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운명을 “물을 마실 수 있는 능력”이란 뜻인 오스-오호-호비(usu uguku khubi)ус уух хув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과 생활력이 강한 사람을 “물을 마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라는 오스-오호-호비타이(usu uguku khubитай)ус уух хувьтай)로 표현하고 있는 것에서도 잘 입증되고 있다.

асчлах)라 부르며 어부를 자가스치(jigasuchi[n]>загасч[ин])라고 표현한다.⁷⁾ 물고기를 잡는 도구인 작살은 자가스-하르바흐-세레에(jigasukharbuku serege>загас харвах сэрээ), 그물은 자가스-곱초오르(jigasun-u gubchigur>загасны гувчуур)라고 부른다.

고대 몽골인들의 어로행위는 주로 강이나 호수에서 행해졌지만 바다에 관련된 물고기의 이름이나 식품도 보이고 있다. 먼저 바닷물고기와 관련된 명칭들은 타마(tam-a>тамаа: 넙치), 할비니(khalbini>халбинь: 가자미), 타흐(taq-a>тах: 방어), 호스흐(khoskh-a>хосх: 복어), 헤르메에(kerm-e>хэрмээ: 복어), 헤르메엔(kermiyen>хэрмээн: 복어), 차가알즈(chagalji>цагаалж: 연어), 야츠(icha>яц: 대은어), 후르츠(kürche>хүрц: 해수어의 일종으로 하얀 지방덩어리가 있다), 힐짐(kijimi>хижим: 해삼)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바닷물고기와 관련된 용어들도 나타난다. 그 중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생선무리를 에레에(ere>эрээ), 신선한 생선을 이랑기(inanggi>янанги), 연어나 송어의 말을 소금에 절인 것을 자가스니-투르스(jigasun-utürisü>загасны түрс), 청어·멸치·은어의 새끼를 자가스니-차강(jigasun-u chagan>загасны цагаан), 물고기의 비늘을 자가스니-하이르스(jigasun-u khayirsu>загасны хайрс), 아가미가 있는 생물을 잘마가이트-아미탄(jalmagaitai amitan>залмагайт амьтан), 물고기가 산란하는 것을 투르스-오르히흐(türisü orkiku>түрс орхих)라고 부르는 것 등이다.

7) 어부를 나타내는 말에는 자비치(jabichi>завьч)나 달라이친(dalaichi-n>далайч[ин])도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용어는 자가스치이다. 1991년도에 부산을 방문한 바 있었던 몽골어학자 소미야바야타르(Сумьябаатар) 교수는 필자에게 부산의 어시장인 자갈치가 어부를 뜻하는 몽골어 “자가스치”의 음역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몽골군의 주둔지가 마산이었음을 감안할 때 그의 주장이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바다 동물로는 할림(khalimu)халим: 고래), 돌랑(dulan)дулан: 상어),⁸⁾ 달라인-모리(dalai-yin mori)далайн морь: 해마), 달라인-노호이(dalai-yin Nokhai)далайн нохой: 물개), 행힌(kengkin)хэнхин: 물개), 오스니-불가(usun-u bulugan)усны булга: 해달) 등의 명칭이 등장하고 있다. 조류로는 아모올라이(amulai)амуулай: 갈매기), 차흘라이(chakhulai)цахлай: 갈매기), 하일가나(khayilagana)хайлгана: 갈매기의 별칭)가 있으며 바다 식물로는 달라인-노고(dalai-yin noguga-n)далайн ногоо: 미역), 하닌(khanin)ханин: 다시마) 등이 있다.

이외 바다란 용어가 들어간 식물로는 달라인-머거어르스(dalai-yin mögersü)далайн мөгөөрс: 식물의 일종), 달라인-사르가이-체체크(dalai-yin sargai checheg)далайн саргай цэцэг: 사과)의 일종) 등이 있고 별자리로는 자가순-오드(jigasun odu-n)загасан од: 물고기자리)가 있다. 그리고 귀중품 즉 보물을 나타내는 말에 슈르-쑤드(sirü-n subud)шүр сүвд: 산호와 진주)라는 단어가 있다.

1.2. 종교적 접근

고대의 몽골인들은 서양에서 전해진 바다의 신을 달라인-왕(далайн Ван)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그리스-로마신화에서의 포세이돈이다. 그러나 몽골인들이 바다라는 용어를 종교적으로 사용한 것은 동아시아 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건 즉 알탄칸(Altan Khan, 1508~1582)이 1578년 티베트 불교의 일파인 겔룩파(Gelüg-pa)의 지도자에게 내린 호칭인 달라이-라마(Dalai-Lama)далайлам)일 것이다. 알탄칸과 티베트불교 겔룩파의 지

8) 민물에서 잡히는 철갑상어는 몽골어로 힐렘(kilim)хилэм)이나 호로브(khorbu)хоров)라 부른다.

도자가 만나는 역사과정은 매우 복잡하지만 그것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대원제국의 붕괴 후 몽골고원으로 후퇴한 북원(北元)은 아요르-시리다라(Ayur-Siridara)⁹⁾와 터구스-테무르(Tögüs-Temür)¹⁰⁾의 영도 하에 명군과 크고 작은 전투를 주고받았다. 그러나 명과 북원 간의 대결은 1387년 나하초(Nakhachu)의 명나라 투항과 1388년 보이르(Buyur)호 전투를 기점으로 명나라의 우세로 기울어졌다. 보이르호 전투의 패배 후 북원 적계(適系)인 터구스-테무르-칸이 토올라(Tu'ula)하변에서 아리크-버케(Arig-Böke)계 예수테르(Yesüder)의 습격을 받아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피살사건을 계기로 북원은 제 세력 간에 상호공방이 끊이지 않는 혼란 국면에 빠져들었다. 몽골족 적계인 타타르(Tatar)부의 내분은 타타르부의 세력을 크게 약화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서부의 오이라트(Oyirad)부와 동부의 오리양카이(Uritangkhai)부가 크게 대두하는 국면을 만들어 주었다. 이 혼란국면은 칭기스칸의 후예인 다얀칸(Dayan-Khagan, 1488~1517)이 등장하여 몽골을 재통일시키는 1488년까지 이어졌다.

다얀칸은 등극 후 권신의 발호를 차단하기 위하여 황태자제도인 지농(濟農, Jinong)제를 부활시키고 몽골제부에 대한 효율적인 통치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칭기스칸 시대의 통치지침이었던 만호제(Tümen-ü noyan)

9) 아요르-시리다라(Ayur-Siridara, 愛猷識里臘達)는 토곤-테무르-카간(Togun-Temür Khagan)의 큰아들로 1338년에 태어났다. 어머니는 고려출신의 황후 열제이투-코 툽토-카툰(Öljeitü-Khutugtu-Khatun, 完者忽都)이다. 북원의 1대 대칸인 그의 몽골어 시호는 빌릭토-카간(Biligtu Khagan)이며 한문 시호는 소종(昭宗)이다. 재위연대는 1371년부터 1378년이다.

10) 터구스-테무르는 아요르-시리다라의 아들로 북원의 2대 대칸이며 재위연대는 1379년부터 1388년이다. 몽골어 시호는 오스칼-카간(Uskhal Khagan)이며 한문 시호는 익종(益宗)이다.

를 실시하였다. 그는 영주들의 영지를 재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차하르(Chakhar)만호, 오리양카이(Uriyangkhai)만호, 칼카(Khalkha)만호라는 좌익 3만호와 오르도스(Ordos)만호, 몽골친(Monggolchin)만호, 웅시예부(Yüngshiyebü)만호라는 우익 3만호로 통치구역을 재편했다. 그리고 흥안령 동서일대의 코르친(Khorchin)부와 삼위(三衛=泰寧衛, 兀良哈衛, 福余衛)에 속한 몽골 제부는 속부로 서부의 오이라트는 자치부로 설정했다.

그러나 다얀칸의 영지개혁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몽골친부의 영주인 코사이(khosai)가 오르도스부의 영주인 만돌라이-아칼라코(Mandulai Akhalakhu) 및 오이라트부의 이브라힘(Ibrahim)을 부추겨 1509년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다얀칸은 이를 우익의 도전으로 간주하여 그해 좌익의 전군(全軍)을 소집한 뒤 코르친부와 오이라트부의 군대도 소집하여 코사이의 반란군을 달란-테리군(Dalan-Terigün)에서 격파하였다. 패배한 이브라힘은 다얀칸의 추격을 피해 청해(靑海)로 도주했다.

우익의 반란을 평정한 다얀칸은 바르스-볼로드(Bars-Bolod)에게 오르도스를 관장케 하고 바르스-볼로드의 둘째아들인 알탄(Altan)에게는 투메트(Tümed)부를 관장케 했다. 이후 알탄은 뛰어난 군사적 재능과 통솔력으로 서서히 몽골의 강자로 성장하였다. 그는 1533년 청해의 오이라트세력을 정벌하고 1538년에는 대칸인 보디-알라크칸(Bodi-Alag Khagan, 1520~1547)을 따라 보르칸(Burkhan)산 일대의 오리양카이 만호를 토벌하기도 하였다.

보디-알라크칸 통치시 몽골의 실력자는 허호호트(Köke-Khota, 呼和浩特) 일대를 근거지로 한 투메트부의 알탄칸이었다. 그는 웅시예부 만호의 땅을 거의 잠식해 들어갔으며 1550년 명나라를 압박해(庚戌之變) 호시를 개설하고 1552년부터 1573년까지 수시로 청해나 오이라트 원정을 감행하여 그 일대의 몽골족도 장악하였다. 보디-알라크칸 사후 몽골의 대칸으로 등극한 다라이손-쿠텡칸(Darayisun-Güdeng Khagan, 1548~1557)은 알탄칸의 위세와 명나라에 대하는 입장의 차이로 말미암아 좌익을 이끌고 오

리양카이 지구로 동천하였다.

몽골의 사실상의 맹주인 알탄칸은 현실적인 실력에도 불구하고 다얀칸이 제정한 황태자제로도 인해 대칸에 즉위할 수 없었다. 그런 그가 대칸에의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자들을 만났다. 그것이 바로 1558년의 청해원정에서 사로잡은 1천명의 티베트불교 겔룩파 라마승들이었다. 윤회를 말하는 그들은 대칸에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알탄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 만남은 “몽골이 라마교를 믿게 된 것은 알탄칸에서 시작한다(蒙古敬信黃教, 實始于俺答)”라는 말처럼 이전의 몽골과 이후의 몽골이 전혀 다른 색채를 띠는 일대사건이었다.

알탄칸은 1577년 부중 수만을 이끌고 청해로 출발하여 1578년 5월 양화사(仰華寺)에서 티베트의 황교 지도자인 소드남-가초(bsod-nams rgya-mtsho, 1543~1588)와 회견하였다. 이 양화사 회견은 라마교의 윤회론을 통해 몽골의 대칸이 되려는 알탄칸의 야망과 그를 통해 몽골로 라마교를 전파하려는 티베트측의 입장이 일대조화를 이루어 성공리에 끝났다. 회견 후 양자는 서로 “와치르다라 달라이라마(Wachir-dara Dalai Lama)”와 “차크라와르 세첸칸(Tsakrawar Sechen Khan)”이라는 존호를 주고받았다.¹¹⁾ 소드남-가초는 알탄칸에 의해 제 3세 달라이라마로 인정되었고 알탄칸은 소드남-가초로부터 코빌라이칸의 환생으로 인정되었다.

청해와 티베트는 대몽골제국 때부터 정치적으로 몽골과 긴밀한 관계를 맺

11) 위의 칭호들은 『몽골원류(Erdeni-yin Tobchi)』에 기록된 몽골어 명칭이다. Wachir-dara Dalai Lama의 티베트명은 thams-cad-mkhyen rdo-rje-'chang dalai-lama이다. thams-cad-mkhyen은 梵語 sarvajina(一切智), rdo-rje-'chang은 梵語 Vajradhara(執金剛)에서 유래된 티베트어 명칭이다. Tsakrawar의 티베트 명칭은 Gakravarti(轉輪王)이다. 당시 소드남-가초가 알탄칸 주변의 몽골인들에게 하사한 명칭에 대해서는 札奇斯欽(Jagchid-Sechin), 『蒙古與西藏歷史關係之研究』台北, 1978, pp.426-429를 참조. 또 양자회동의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는 졸저, 『유라시아 초원제국의 샤마니즘』서울, 2001, pp.336-338을 참조. 아울러 알탄칸 및 그 후예에 대해서는 青木富太郎, 『萬里の長城』東京, 1972, pp.123-259를 참조.

기 시작했지만 양화사의 회견을 기점으로 종교까지 공유하는 단계까지 발전했다. 양화사 회견 후 라마교는 몽골지구로 급속히 전파되기 시작해 결국 몽골을 라마교의 세계로 만들었다. 라마교의 수호자가 된 몽골족은 이후 청해는 물론 티베트까지 이주하여 그들의 종교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또 몽골족과 연합정권을 이루고 있었던 대청제국의 통치자들도 라마교를 적극 지지했다. 이로 인해 17세기에 들어와서는 티베트인, 몽골인, 만주인(청나라를 수립한 사람들)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이념벨트인 티베트불교권이 성립되었다.¹²⁾

달라이라마와 판첸라마로 상징되는 겔룩파 티베트불교는 바로 이 시대의 상징이었다. 이 시대의 상징은 1780년 열하를 방문한 박지원의 『열하일기』에도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조선은 바다를 담지 못했다. 주자학의 세계는 바다를 용납할 만큼 큰 배는 아니었다. 1911년 신해혁명(辛亥革命)을 통해 티베트의 성직자가 청나라나 몽골 등 유목왕권의 권위보증을 담당하는 이념벨트는 파괴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알탄칸이 소드남-가초에게 하사한 달라이라마라는 용어는 여전히 티베트불교의 상징으로 몽골인과 티베트인들은 물론 세계인들의 가슴에 자리 잡았다. 즉 달라이라마는 몽골의 바다가 종교적 색채를 띠고 세계의 품에 들어온 대표적인 예로 간주될 수 있다.¹³⁾

-
- 12) 티베트, 몽골, 청조를 잇는 티베트불교벨트에 대해서는 石濱裕美子の〈轉輪王思想がチベット・モンゴル・清朝三國の王の事績に與えた影響について〉『史滴』16, 1994; 〈ガルダン・ハルハ・清朝・チベットが共通に名分としていた「佛教政治」思想—滿州文・モンゴル文・漢文『朔漠方略』の史料批判に基づいて—〉『東洋史研究』59-3, 2000; 〈チベット, モンゴル, 滿洲の政治の場で共有された「佛教政治」思想について〉[早稲田大學教育學部]『學術研究—地理學・歴史學・社會科學編—』48, 2000을 참조.
- 13) 몽골어로 바다를 뜻하는 달라이란 용어는 티베트어로 감초(Rgyamts'o)이며 몽골어 발음은 잠소(Jamsu)이다. 티베트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오로도스-우익후기의 몽골 귀족 중에는 예케-잠소(Yeke-Jamsu, 큰 바다), 바가-잠소(Baga-Jamsu, 작은 바다)처럼 티베트어를 사용하여 이름을 짓는 예도 나타나고 있다.

2. 바다와 육지를 이은 제국

유라시아 대륙의 심장부는 지리적으로 동서양을 모두 바라보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운명적이라 할 정도로 양쪽을 연결해주는 가교의 역할을 수행해야만 했다. 역사에서는 이 지역이 수행한 역할을 동서문명의 십자로, 옥의 길, 실크로드(비단길), 스텝로드(초원길)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동서양의 사람들은 단지 이곳을 길로만 인식했지 이곳에 사는 초원사람들의 꿈과 이상은 보지 못했다. 유라시아 대륙의 초원사람들은 지리적인 위치로 인하여+a 즉 경제교류의 중요성을 역사 이래 누구보다도 실감했던 사람들이다.

대몽골제국은 아랍이나 페르시아, 위구르 등 서역상인들의 합작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처음부터 중상주의제국으로 기획되고 시작된 제국이다. 중상주의 제국으로의 길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것이 잠치이며 그 잠치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바다와 육지를 이은 대도(大都)이다.

2.1. 대몽골의 길과 대도(大都)

1227년 칭기스칸이 세상을 떠난 뒤 제국의 통치집단들은 그의 유언대로 3남인 어거데이를 제국의 대칸으로 추대했다. 어거데이(Ögödei, 1186?~1241)는 대칸에 등극한 후 몽골연방을 구성하는 주요 인물들의 이해를 하나로 일치시키며 본격적인 세계경영의 시대로 들어갔다. 이 시대의 상징이 바로 칭기스칸이 구상한 잠치라는 통신망의 완벽한 구축이었다. 이로 인해 제국의 의지는 유라시아대륙의 동과 서를 관통해 세밀한 구석까지 가감 없이 전달될 수 있었다. 그야말로 인류사상 최초로 등장한 광속의 통합망이었다. 대몽골제국은 이제 세계의 동심원이 되었다. 그는 이 세계의 동심원을 유지

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행정·재정 등 중앙정부의 조직도 정비해 나갔다.

대몽골제국은 어거테이카간을 이은 구유크카간(Güyük Khagan, 1206~1248), 명케카간(Möngke Khagan, 1206~1259) 때에 이르러 동서양을 잇는 대제국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특히 확고한 원칙제시와 뛰어난 기획력을 겸비한 명케카간은 칭기스칸 이래의 소원이었던 초원과 바다를 하나로 엮는 대통합을 시도하고 나섰다. 그 일환으로 전개된 것이 1252년 코빌라이(Khubilai, 1215~1294)의 대리(大理)국을 정벌과 사아리-노안(Sa'ari-Noyan)이 이끄는 별동대의 아프카니스탄 파견이다. 1252년에 행해진 이 두 원정은 서역상인들의 전쟁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물자 및 바닷길의 확보를 위한 성격이 농후했다.

은을 국제통화로 삼고 있었던 서역상인들의 눈으로 볼 경우 운남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지방이었다. 세계무역의 통합을 꿈꾸는 명케칸 역시 세계통합제국의 기본 화폐를 은으로 삼고자 했다. 코빌라이는 8만 명에 이르는 군대와 4백만 마리에 이르는 말을 희생한 끝에 1253년 12월 대리의 수도인 태화성(太和城)을 점령하는데 성공했다. 이 대리의 원정은 대몽골제국이 꿈꾸는 것이 무엇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¹⁴⁾

운남을 거의 접수했다는 소식을 들은 명케칸은 1253년 10월 동생인 홀레구(Külregü, 1218~1265)에게 원정준비를 끝낸 대군을 이끌고 이란의 바그다드로 출발할 것을 명했다. 이란에 진입한 홀레구는 암살자의 교단이라는

14) 코빌라이의 원정 후 이곳에는 많은 이슬람상인들이 거주했다. 또 그에 따라 이슬람교 및 이슬람문화도 전파되었다. 오늘날 운남성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심심찮게 회교도들을 만날 수 있다. 이들이 바로 그들의 후예들이다. 이후 코빌라이에 의해 바닷길이 열렸을 때 이 지방은 큰 번영을 누렸다. 그리고 바닷길을 따라 동남아시아의 요충에는 서역상인들에 의해 이슬람교가 전파되었다. 대몽골제국이 붕괴한 후 이곳의 사람들은 그 옛날의 영광을 그리며 바닷길의 부활을 원했다. 명나라 영락제(永樂帝, 1360~1424) 때 행해진 정화(鄭和, 1371~1435?)의 대원정은 바로 그 열망의 산물이다. 영락제는 명나라의 황제 중 몽골의 꿈을 유일하게 계승했던 인물이었으며 정화는 운남성의 회교도였다.

명성을 들으며 사회질서를 교란시키고 있었던 이스마일리파(Ismailism)를 완벽히 제압했다. 이스마일리파를 진압한 훌레구의 서정군은 1258년 2월 10일 바그다드를 함락하고 압바스조(750~1258)를 멸망시켰다. 그리고 1259년 9월에는 시리아(Syria)로 진군하여 다마스커스를 점령했다. 괭간(郭侃)이 이끄는 선발대는 소아시아반도를 넘어 유럽으로 이어지는 길목의 섬인 키프로스도 점령했다.

멍케칸은 운남의 공략이 성공적으로 완수되고 또 서아시아 원정군이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자 1256년 6월 다이르-아타(Dayir-Ataga)에서 코릴타를 개최한 뒤 정식으로 남송정벌을 결의했다. 이제 인류대통합의 마지막 단계가 시작된 셈이다. 그러나 멍케칸의 야망은 1259년 8월 18일 조어성(釣魚城)에서 장티푸스로 돌연 사망함으로써 꿈의 종말을 보지 못하고 끝났다.

그리고 그 임무는 고려의 왕자(태자 僖=원종)를 등에 업고 쿠데타를 일으킨 코빌라이에게 맡겨졌다. 코빌라이는 몽골의 위대한 코릴타(Khurilta)의 전통을 파기하고 대몽골제국의 동방세력을 주축으로 1260년 3월 상도(上都)에서 스스로 대칸에 올랐다. 이로 인해 혼란과 분열이 일시 제국에 휘몰아쳤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형 멍케칸의 뒤를 이어 제국의 야망을 이루어가기 시작했다.

쿠데타로 대칸에 오른 코빌라이는 자신의 선택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이전의 대칸들이 기획했던 제국의 야망을 보기 좋게 성공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1260년부터 4~5년간 제국의 통치집단들과 대칸계승의 정통성을 둘러싼 치고 박는 난타전을 전개했다. 그리고 군사적인 절대우세가 결정되자 만주지역의 타차르(Tachar), 중앙아시아의 아르곤(Argun), 페르시아의 훌레구(Külregü), 러시아의 베르케(Berke) 등을 설득했다. 그리고 제국의 모든 통치집단들이 1266년 코빌라이의 근거지에 모여 그의 대칸즉위를 공식화하고 제국의 새로운 미래를 기획하자는데 합의를 보았다.

코빌라이에게는 이 1266년이 바로 꿈의 해였다. 그는 이들에게 자기의

야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세계통합의 수도를 건설하기를 원했다. 대도는 바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1266년부터 건설에 들어가기 시작했으며 1283년에 그 첫 모습을 드러냈다. 코빌라이가 생전에 완성한 대도는 그야말로 하나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기획된 도시였다. 세계제국의 수도이자 기획된 도시로서의 성격을 극명하게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 한 가운데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적수담(積水潭)이란 호수이다.

이 인공호수는 오늘날 북경의 관문을 이루는 또 하나의 기획도시 천진(天津)과 운하로 연결되어 있다. 운하는 1293년에 완성되었다. 바로 이 인공호수는 바닷길의 종착역이었다. 적수담의 동북 기슭에는 국제시장과 경제관청들이 줄지어 늘어선 거대한 경제특구가 조성되었다. 이 인공호수의 아래쪽에는 몽골초원을 상징하는 인공초지와 수림이 조성되었다. 자연 호수인 태액지(太液池) 옆에 조성된 이 초지와 수림에는 고정식 궁궐과 이동식 궁전이 건립되었다. 그리고 세계 인류의 화합을 염원하듯 각 종교를 대변하는 거대한 성전들이 이 주위를 빙 둘러 건립되었다. 그야말로 오늘날의 뉴욕 월가와 워싱턴 및 바티칸을 한곳에 집중시켜 놓은 모양과 같았다.

대도는 초원과 바다를 잇는 상징이었다. 또 성 자체와 그 안에 들어선 모든 건물들도 세계 최고의 아름다움을 가지도록 지어졌다. 칭기스칸의 대몽골제국이 꿈꾸어 왔던 디지털제국의 꿈은 대도에서 완벽하게 구현된 것이다. 오늘 날 북경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 옛날의 향기를 맡을 수 있다. 북해공원(北海公園)과 고위관리들이 모여 사는 중남해(中南海)가 바로 몽골이 인공적으로 조성한 초지와 숲의 유적들이다. 대도에서 처음 선보인 초지와 숲은 이후 세계 각국 도시공원의 모델이 되어 역사에 그 맥을 이어갔다.

대도는 몽골인들에게는 예케-호타(Yeke Khota: 큰 도시), 서역인들에게는 돌궐어로 대칸이 사는 도성이라는 의미의 칸-발리크(Khan-Balig)라고 불려졌다. 대도는 유라시아대륙을 관통해 흐르는 잠치의 출발점이자

중착점이었다.¹⁵⁾ 코빌라이는 유라시아대륙을 관통해 흘러 들어오는 물자를 보관하기 위하여 대도와 상도에 이르는 지역을 대규모의 물류기지로 만들었다. 중앙아시아와 초원에서 들어오는 물자들은 모두 이곳에 보관되었다. 광역 수도권 개념을 연상케 하는 그의 해안은 정말 놀랍기만 하다.

이제는 바닷길만 트면 완벽한 구도가 갖추어지는 셈이다. 페르시아와 아

- 15) 오늘날의 북경은 명나라 영락제 때 건설한 도성의 모습이 계승된 것이다. 영락제는 1406년부터 대도의 폐허에 수도를 정하고 13년의 건설기간 끝에 1420년에 완공했다. 북경이란 명칭도 이때 처음 시작되었다. 명나라를 정복한 청나라는 순치제 때인 1644년 10월에 북경을 수도로 선포했다. 명나라와 청나라의 근거가 되었던 대도는 1368년 주원장(朱元璋, 1328~1398)의 대도 진입 때 크게 파괴되어 현재는 유적의 일부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도는 인류역사상 주목받는 도시의 하나에 속한다. 대도에 관한 논저는 北京大學歷史系北京史編寫組, 『北京史』北京(增訂版), 1999; 賈洲杰, 〈元大都〉『內蒙古大學學報』1977-3 및 〈元大都調查報告〉『文物』1977-5; 駒井和愛, 〈元の上都并に大都の平面について〉『東亞論叢』3, 1940; 渡邊健哉, 〈元代大都南城について〉『集刊東洋學』82, 1999; 默書民, 〈元代大都糧食來源與消費〉『元史論叢』9, 2004; 杉山正明, 〈クビライと大都〉『中國近世の都市と文化』京都, 1984; 岩村忍, 〈元の大都〉『蒙古』115, 1942; 愛宕松男, 〈元の大都〉『歴史教育』14-12, 1966; 余兆權, 〈元代大都城之沿革及其平面建築規劃述略稿〉『史潮(홍콩中文大)』7, 1982; 王鏊, 〈14世紀大都的“馬拉松”賽〉『文史知識』1982-9; 王燦熾, 〈談元大都的城牆和城門〉『故宮博物院院刊』1984-4 및 〈元大都鐘樓考〉『故宮博物院院刊』1985-4; 王浩, 〈試析忽必烈定都大都之原因〉『內蒙古社會科學』1998-4; 張寧, 〈馬可波羅與元大都〉『文物天地』1982-2; 趙其昌, 〈『析津志』所記元大都府驛斗式機輪水車〉『文物』1984-10; 周繼中, 〈元大都人口考〉『中國蒙古史學會論文選集(1981)』呼和浩特, 1986; 朱玲玲, 〈元大都與北京城〉『百科知識』1982-2 및 〈元大都的坊〉『殷都學刊』1985-3; 朱傑, 『元大都宮殿圖考』北京, 1990; 中村淳, 〈元代法旨に見える歷代帝師の居所—大都の花園大寺と大護國仁王寺—〉『待兼山論叢(史學篇)』27, 1993 및 〈元代大都の勅建寺院をめぐって〉『東洋史研究』58-1, 1999; 陳高華, 『元大都』北京, 1982 및 〈元代大都의 飲食生活〉『中國史研究』1991-4; 淺海正三, 〈元大都雜考〉『史潮』6-1, 1936; 青木富太郎, 〈元の大都〉『歴史教育』5-7, 1957; 村田治郎, 〈元・大都の都市計劃に關する一考察〉『滿洲學報』3, 1934 및 〈元の大都の都市計劃に就いて〉『建築學會論文集』9, 1938; 侯仁之, 〈元大都城與明清北京城〉『故宮院刊』1979-3; 金壽, 侯仁之 共著, 『北京史話』上海, 1980 등을 참조.

라비아반도를 떠난 서역의 상인들이 거대한 물자를 싣고 이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항주(杭州), 천주(泉州), 광주(廣州) 등 남송의 항구도시를 경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도의 인공호수인 적수담은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코빌라이가 대도의 건설에 착공한 1266년부터 이미 남송에 선전포고를 했다는 것을 뜻한다.

코빌라이의 시대에 벌어졌던 수많은 전쟁은 사실 남송전을 제외하고는 모두 겉가지에 불과하다. 물자대국인 남송은 세계 순환교역에 있어 가치를 따질 수 없을 정도의 소중한 존재였다. 코빌라이가 인류사상 최초로 농업세를 폐지한 꿈의 제국을 건설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그는 세계 최대의 생산기지이자 소비지인 남송을 다치지 않고 통 채로 삼키기를 원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피한방울 흘리지 않고 통째로 남송을 삼켰다.

코빌라이는 1267년 8월부터 남송의 요충인 양양(襄陽)·번성(樊城) 포위작전을 통해 장장 6년에 걸쳐 남송의 정예군단인 여문환(呂文煥)을 설득했다. 남송의 군단은 자기들을 저버린 채 최후까지 사소한 이익을 탐했던 부패한 조국을 향해 울었다. 그리고 진정 자기들을 알아준 코빌라이를 향해 울었다. 여문환이 투항하자 코빌라이는 1274년 6월 정식으로 남송을 접수한다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여문환의 군대가 앞장을 섰고 바얀(Bayan)이 이끄는 대몽골군은 묵묵히 그 뒤를 따라 남송의 수도인 임안(臨安)까지 이르렀다. 1276년 1월 18일 남송은 항복했고 코빌라이의 꿈은 실현되었다.

2.2. 코빌라이칸과 포수경(蒲壽庚)

1276년 1월 남송이 항복한 후에도 문천상(文天祥, 1236~1282)과 육수부(陸秀夫) 등을 위시한 일부 군대는 저항을 멈추지 않았다. 이들이 믿고 있는 것은 당시 남송과 무역을 하면서 바닷길을 장악한 이슬람의 거대한 해

양세력이었다. 그러나 이슬람상인들은 아무도 이들을 지원해 주지 않았다. 지원세력이 없는 저항군은 1279년 2월 다국적군인 서하와 한인군단에게 물려 오늘날 광둥성 남부 주강(珠江) 삼각주에서 최후를 맞았다. 최후의 항장이었던 육수부는 9살에 불과한 어린 황제 조병(趙昞)을 등에 업고 애산(厓山)의 섬 절벽에서 출렁이는 파도를 향해 몸을 날렸다.

왜 서역상인들은 남송을 지원해 주지 않았던 것일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이유를 당시 바닷길을 장악한 서역상인의 대표주자 포수경(蒲壽庚)의 길을 따라서 추적해 보기로 하자.

코빌라이칸은 동아시아전체와 러시아의 극동지역 및 중앙아시아, 인도, 이슬람제국을 엮는 방대한 순환 무역루트의 구축을 꿈꾸었다. 그는 이것을 위해 자신의 본거지인 상도(上都)와 북경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물자기지 건설에 나섰다. 코빌라이는 상도를 여름수도, 북경인 대도를 겨울수도로 삼았다. 그리고 상도와 북경 사이의 350km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물류기지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 일대의 곳곳에 관영공장이나 군사기지, 곡물비축시설, 궁전 등 군사·정치·경제의 모든 기능을 집중시켰다.

소위 오늘날의 말로 하면 대형 수도권의 개념과 같다. 유라시아의 초원세계와 중앙아시아 및 이란에서 오는 물자는 이 수도권 일대에 포진된 창고에 차곡차곡 보관되었다. 중원과 티베트 및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올라온 물자들도 역시 이곳에 보관되었다. 이 물자들은 상도와 북경에 위치한 무역사무소의 문서로 결제·교환되었고 그대로 세계각지로 실려 나갔다. 수도권이 보존되고 무역이 활성화되는 한 코빌라이의 꿈은 그대로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았다.

코빌라이의 의도는 당시 남송과 바닷길로 무역거래를 하고 있었던 사우디·이란계 이슬람 상인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들은 유라시아 대륙에서 활약하고 있는 서역상인들과 매우 닮은꼴인 사람들이다. 당시 국제무역항인 천주(泉州)와 광주(廣州)¹⁶⁾ 일대에서 남송과 무역을 하고 있었던 그들은 코

빌라이의 움직임에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전부터 서역상인들을 통해 대몽골제국의 구상을 어렵잖이 알고 있었다. 그들은 대몽골제국의 길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이익과 효과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남송의 구원 대신에 멸망을 기다렸다. 남송이 멸망하자 바닷길이 뚫렸다. 그리고 바닷길의 마피아와 같은 존재였던 이슬람 해상상인들도 몽골의 품에 안기기 시작했다.

당시 코빌라이의 품에 안긴 대표적인 상인이 아랍 혹은 이란계 출신의 포수경(蒲壽庚)이다. 그는 천주(泉州)와 광주(廣州)를 근거지로 아라비아와 인도, 동남아시아 및 남송에 이르는 바닷길을 30년 동안 장악하고 있었다. 국제무역을 무시했던 남송정부도 그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어 천주항의 선박출항과 통상을 관리하는 제거시박(提舉市舶)으로 임명할 정도였다. 몇 개 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그는 해양상인이자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행정 책임자이기도 한 묘한 수수께끼의 인물이었다.¹⁷⁾

16) 중국 광둥성 광주(廣州)시 이슬람교도 묘역인 청진선현고묘(清真先賢古墓) 부근에서 1985년 7월 도시 확장공사를 하던 중 고려인 라마단(Ramadan)의 묘비가 발견되었다. 묘비는 높이 62cm, 폭 42cm, 두께 6.2cm 크기로 정면에는 이슬람 경전인 코란 제2장 255절을 인용한 아랍어가 크게 새겨져 있고, 좌우측에는 한자가 작게 새겨져 있다. 우측면의 한자에 “대도로(大都路) 완평현(宛平縣) 청현관(靑玄關)에 살았던 라마단(刺馬丹)은 고려사람(高麗人)이다. 나이 38세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좌측면의 한자에는 “1312년(고려 충선왕 4년)에 알라웃딘의 아들로 태어난 라마단은 대도 남쪽의 청현관(靑玄關)이란 저택에 살다가 1349년 광서도(廣西道) 용주(容州) 육천현(陸川縣)을 다스리는 다로가치(達魯花赤, Darugachi)에 임명됐다. 그 해 3월 22일 숨졌다.” 그가 지방 행정관인 다로가치(Darugachi)로 임명된 점으로 보아 대원제국에서 상당한 배경을 가진 고려 명문가 출신이었음은 분명하다. 그가 이슬람교를 믿게 된 것은 대몽골의 종교적 개방성과 다양성 즉 혼혈문화에 기초를 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몽골이었다.

17) 蒲壽庚에 대해서는 桑原隲藏, 《宋末の提舉市舶西域人蒲壽庚の事蹟》上海, 1923; 杉本直治郎, 《蒲壽庚の國籍問題》《東洋史研究》11-5・6, 1952; 前嶋信次, 〈泉州の蒲氏勃興の年代について〉《史學雜誌》61-12, 1952; 上同, 〈泉州の波斯人と蒲壽庚〉《史學》25-3, 1952; 上同, 〈元末の泉州と回教徒〉《史學》27-1, 1953;

포수경의 휘하에는 수천 척의 배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몽골과 남송의 전쟁에서 중립을 지킨 채 몽골의 길을 기다렸다. 사실 포수경은 남송의 저항 세력들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지지하지 않았다. 애산의 구슬픈 파도는 이미 그 서막을 열고 있었던 셈이다. 포수경의 아래에는 전쟁의 발발 전부터 운남에서 파견된 몽골측 서역상인들이 포진되어 있었다. 임안이 함락된 후 포수경은 어머 어마한 해양함대를 이끌고 코빌라이에게 투항했다. 그리고 코빌라이의 꿈대로 남해원정을 기획하고 실행했다.

포수경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남해원정은 결코 군사작전이 아니다. 원정에 참가하는 군대들은 모두 자원부대들이었다. 중앙정부는 어떤 계획이나 지시를 내려 보내지 않았다. 원정자체가 처음부터 해상상인들의 이권을 노린 경제전쟁이었다. 베트남으로부터 태국, 버마, 자바에 걸치는 이 원정은 군사함대가 아닌 무역선단이 주축이 된 경제함대였다. 이 함대는 현지 정권의 전복이나 섬멸이 목적이 아니라 경제교류를 강제하는 일종의 선전부대였다. 미래의 이익을 설파하는 이 선전부대에 각국이 호응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했다. 이슬람 해양 상인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 원정 결과 몽골은 천주에서 동남아시아를 거쳐 이란의 호르무즈 등과 이어지는 해상루트를 장악할 수 있었다.

바닷길의 확보는 물류기지로서의 수도권의 개념을 그야말로 확정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유라시아루트와 바닷길을 장악한 몽골은 그야말로 꿈의 나라였다. 이 순간 대원제국은 내부의 사정은 어떻든 정말 육지와 바다의 정점에 선 세계국가가 되었다. 몽골의 계승원칙을 깬 코빌라이의 과오가 후대에 많이 희석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육로와 바닷길을 연결시킨 물류기지로서의 수도권은 그 역사의 향기를 많은 곳에서 남기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의 하나가 베네치아이다.

川越泰博, 〈泉州回教徒蒲氏系譜考—《蒲壽庚家譜》先世記事の再検討—〉《東方宗教》43, 1974;
張秀民, 〈蒲壽庚爲占城人非阿拉伯人說〉《蘭州大學學報》1979-1 등의 논저를 참조.

아름다운 물의 도시라 불려지는 베네치아에는 오늘날까지 대몽골제국 때 맺은 통상협정서가 보존되어 남아 있다. 이 협정서에는 베네치아상인들도 동방의 예에 따라 극히 낮은 상세를 부과받으며 또 상품 운반도중에 해를 입을 경우에는 몽골이 보증한다고 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 피사의 사탑으로 유명한 무역도시 피렌체에는 오늘날까지 몽골제국 상업안내서란 책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상거래의 방법이 상세하게 기록된 이 책에는 흑해에서 남러시아 초원까지만 도착하면 몽골에 의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그대로 아득한 동방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다.

이 두 개의 무역항구가 이후 유럽을 깨운 르네상스의 발원지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경제의 통합교류를 꿈꾸었던 칭기스칸의 향기는 머나먼 서방에서 다시 생명을 얻듯 꽃피어난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세계역사는 다시 유럽을 중심으로 분리에서 통합으로 나아갔던 것이다.

3. 고려의 섬들

코빌라이칸은 고려를 사돈의 나라라고 불렀다. 그리고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딸인 코톨룩-카이미시-베키(Khutulug Khayimish Beki, 1259~1297)을 충렬왕에게 시집보냈다. 또 자신도 뛰어난 미모와 애절한 노랫가락, 비파솜씨로 유명한 고려 여인 이궁인(李宮人)을 사랑했다. 코빌라이칸은 고려사절들이 올 때마다 생선국을 하사했다. 고려인들이 생선국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아마 역사상 세계의 통치자 중 한국을 가장 잘 이해했던 황제가 바로 코빌라이칸일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가장 개방적이지 세계를 인식하며 교류를 행했던 때가 고려였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역사상 외국어를 가장 능숙하게 구

사했던 관료층이 원나라 때의 고려이다. 그로 말미암아 최고위층과의 교류가 일가처럼 행해졌으며 서로 간에 강력한 결혼동맹도 행해졌다.¹⁸⁾ 그래서 원나라와 고려는 원나라의 지배세력이 교체될 때마다 정치적 파란을 동시에 맞는 적이 많았다.

고려의 왕이나 대신들은 티베트나 섬서, 중앙아시아, 운남 등 아시아의 깊은 내륙으로 유배되는 일이 많았고 몽골의 귀족들은 고려의 섬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한 많은 세월을 지나는 일이 많았다. 또 바다의 제패를 꿈꾼 코빌라이칸은 탐라를 끔찍이 아꼈다. 탐라는 태평양에 뜬 유라시아의 대륙의 향기라고 불릴 만큼 코빌라이칸의 섬이었다. 그러면 고려의 섬들에 얽힌 몽골의 꿈과 눈물을 살펴보기로 하자.

3.1. 몽골귀족들의 유배지인 고려의 섬

몽골과 고려는 역사적으로 서로 간에 사연이 많다. 그 사연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고려의 섬이다. 몽골은 귀족일 경우 피를 흘리지 않고 죽이는 그들의 습속¹⁹⁾에 따라 종신유배지로 고려의 섬들을 선호했다. 광대한 초원의 고향을 떠나 도착한 파도만 출렁이는 지역의 유배지는 그들에게 슬픔과 눈물, 절망 그 자체였을 것이다. 그러면 어떤 인물들이 어떤 사연으로 고려의 섬들에 유배를 왔으며 그들이 머문 섬들은 어떤 곳이었을까.

고려사에는 21명의 몽골 귀족이나 장군들이 고려의 섬들로 유배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것을 알기 쉽게 도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18) 고려와 몽골의 혼인교류사에 대해서는 졸저, 〈세계를 제패한 고려여인들〉『배반의 땅, 서약의 호수-21세기 한국에 몽골은 무엇인가-』서울, 2008, pp.15-42를 참조.

19) 몽골의 처형습속에 대해서는 졸저, 『유라시아 초원제국의 사마니즘』pp.144-147을 참조.

NO	시대	이름	지위	섬	유배기간
1	원세조	愛牙赤	황자	大靑島	1280, 8-1281, 11
2	원세조	室剌只	大王?	大靑島	1283, 9-종신
3	원세조	闊闊歹	大王	大靑島	1288, 6-1297, 12(死)
4	원세조	石列紇	大王	人物島	1289, 9-종신
5	원세조	野里不	叛將	高鸞島	1289, 9-종신
6	원세조	撒里只	叛將	與音島	1289, 9-종신
7	원세조	阿里禿	大王	苳盆島	1292, 3-종신
8	원세조	塔也速	叛將	白翎島	1292, 4-종신
9	원세조	闊吉出	叛將	大靑島	1292, 4-종신
10	원세조	帖亦速	叛將	烏也島	1292, 4-종신
11	원세조	불명	大王	靈興島	1292, 4-종신
12	원세조	불명	大王	祖月島	1292, 4-종신
13	무종	迷里不花	平章	烏安島	1311, 2-종신
14	인종	阿木哥	魏王	耽羅, 大靑島	1317, 1-1323, 11
15	영종	孛剌	太子	大靑島	1324, 1-1329, 3
16	명종	安權帖睦爾	太子	大靑島	1330, 7-1331, 12
17	순제	孛蘭奚	大王	耽羅	1340, 2-종신
18	명태조	拍拍太子	大王	耽羅	1389, 11, -종신
19	명태조	六十奴	拍拍太子的 아들	耽羅	1389, 11, -1390, 10(死)
20	명태조	卜尼	환관	耽羅	1389, 11, -종신
21	명태조	愛顔帖木兒	梁王子孫	耽羅	1392, 3-종신

그러면 이 도표에 나오는 순서대로 21명의 사적을 고찰해 보기로 하자.

3.1.1. 애아적(愛牙赤)

애아적(愛牙赤)은 고려사에 阿伊哥赤, 愛加赤로도 표기되어 있는데 모두 몽골어 아야치(Ayachi)의 음역이다.²⁰⁾ 아야치는 코빌라이칸의 8번째 아들로 추정되고 있으며²¹⁾ 어머니는 쿠시진(Küshijin, 旭失眞) 카툰이다.

20) 아야치는 몽골어로 여행자를 뜻하는 아야치(aya[n]chi)аянч이나 요리보조인을 뜻하는 아야가치(ayaga[n]chi)аягач의 음역이라고 보여진다.

아야치는 나얀(Nayan, 乃顔)의 반란(1287.3~1291) 때 코빌라이칸을 따라 종군한 적이 있다. 그가 고려로 유배된 때는 1280년 8월부터 1281년 11월까지 1년 3개월로 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²²⁾ 그가 유배된 대청도(大靑島)는 김방경(金方慶) 등 고려인들도 많이 유배된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유배 섬이다. 대청도는 몽골어로 크고 푸른 섬 즉 이흐-허흐-아랄(Yeke Köke aral)Их Хөх арал이라고 부른다.

3.1.2. 실자지(室刺只)

실자지(室刺只)는 발음상 시리기(Shirigi, 昔里吉)와 매우 유사하다.²³⁾ 시리기는 명케카간의 4번째 아들로 1276년 가을 몽골지역에서 반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이 반란을 몽골역사에서는 시리기의 반란(1276~1282)이라고 부른다. 시리기는 반란의 패배 후 1282년에 코빌라이에게 잡혀왔으며 그해 海島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죽었다.²⁴⁾ 실자지(室刺只)가 누구인지는 분명치

21) 코빌라이칸의 아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확히 고증되지 않고 있는데 『元史』〈宗室世系表〉에는 코빌라이의 10명의 아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페르시아의 사료인 『집사』〈코빌라이紀〉에는 일곱 명의 부인에게서 출생한 12명의 아들 이름만이 기재되어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① 도르지(Dorji, 朶而只), ② 燕王 친킴(Chinkim, 眞金), ③ 安西王 망갈라(Manggala, 忙哥剌), ④ 北安王 노모간(Nomugan, 那木罕), ⑤ 코리다이(Khoridai), ⑥ 雲南王 후게치(Hügechi, 忽哥赤), ⑦ 西平王 오그룩치(Ogrugchi, 奧魯赤), ⑧ 아야치(Ayachi, 愛牙赤), ⑨ 寧王 커커추(Kököchü, 闊闊赤), ⑩ 코톨룩-테무르(Khutlug-Temür, 忽都魯帖木兒), ⑪ 鎮南王 토곤(Togun, 脫歡) ⑫ 姓名 未詳.

22) 『고려사』에 나오는 아야치의 사적은 다음과 같다. ①(충렬왕 1278년 6월)阿伊哥赤大王妃來迎于三十里之地. ②(충렬왕 1278년 8월)元流皇子愛牙赤于大靑島…公主宴愛牙赤于新殿. ③(충렬왕 1281년 11월)元召還皇子愛牙赤. ④(충렬왕 1283년 8월)愛牙赤大王遣使來獻幣. ⑤(충렬왕 1288년 1월)愛加赤大王遣使來求馬. ⑥(后妃二, 忠烈王)帝流皇子愛牙赤于大靑島.

23) 시리기(shirigi)шириги란 몽골어로“풀이 많이 난 부드러운 땅”이란 뜻이다.

24) 『원사』〈伯顔傳〉에는 “十四年(1277),諸王昔里吉劫北平王,拘安童,脅宗王以叛,命伯顔率師討之,與其衆遇於幹魯歡河,夾水而陣,相持終日,俟其解,麾軍爲兩隊,掩其

않으나²⁵⁾ 만약 그가 시리기에 비정(比定)될 수 있다면 대청도는 아야치 이래 몽골 황자들의 유배지로 고정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3.1.3. 활활알(闊闊歹)

활활알(闊闊歹)은 몽골어로 “푸름을 가지고 있는 자”란 커케데이(Kökedei)의 음역이다. 대왕(大王)이란 칭호로 미루어 황금씨족(Altan urug)의 직계임이 분명하며 그의 유배시기 및 유배상황으로 미루어 나얀의 반란(1287.3~1291)에 가담한 동방 왕가의 일원 즉 칭기스칸의 동생인 조치-카사르(Jochi-Khasar), 태무게-오토치긴(Temüge-Odchigin), 카치온(Khachi'un) 등 동방왕가의 후예라고 보여진다.²⁶⁾ 유배 섬은 대청도이며 그곳에서 최후를 마쳤다.

3.1.4. 석렬홀(石列紇)

석렬홀(石列紇)은 시리기(Sirigi)의 음역이며 대왕이라는 칭호로 미루어 앞서 말한 시리기(Shirigi, 昔里吉)와도 비정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인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그 역시 나얀의 반란에 가담한 동방왕가의 후예라고 보여진다.²⁷⁾ 그가 유배된 인물도(人物島)는 현재 고증이 되지 않고 있다.

不備,破之,昔里吉走死”처럼 시리기가 전투의 패배 후 피살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몽골측 자료에 의하면 그는 그곳에서 잡혀 코빌라이칸에게 보내졌고 그해 해도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죽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원사』의 “昔里吉走死”는 추정에 불과하다.

- 25) 실자지(室刺只)는 『고려사』에“(충렬왕 1283년 9월)元流室刺只于大靑島”처럼 기록되어 있다.
- 26) 활활알(闊闊歹)은 『고려사』에“(충렬왕 1288년 6월)流大王闊闊歹于大靑島”,“(충렬왕 1297년 12월)闊闊歹大王死于大靑島”처럼 기록되어 있다.
- 27) 석렬홀(石列紇)은 『고려사』에“(충렬왕 1289년 9월)元流大王石列紇于人物島,野里不于高鷲島,撒里只于與音島”처럼 기록되어 있다.

3.1.5. 야리불(野里不)

야리불(野里不)은 몽골어로“높다”라는 뜻을 지닌 에르구(ergüü)ᠡᠷᠭᠦᠢ의 음역으로 보여지지만 확실치는 않다. 야리불은 나얀의 반란에 가담한 석렬홀(石列紇)의 부장(部將)으로 보여지며 그가 유배된 고란도(高鸞島)는 아직 고증이 되지 않고 있다. 그는 이곳에서 일생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3.1.6. 살리지(撒里只)

살리지(撒里只)는 고대 몽골 이름에 자주 등장하는 살지(Salji)의 음역이라고 보여지며 그 뜻은 아직 고증되지 않고 있다. 살리지는 나얀의 반란에 가담한 석렬홀의 부장으로 보여지며 그가 유배된 여음도(與音島)는 아직 고증이 되지 않고 있다. 그는 이곳에서 일생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3.1.7. 아리독(阿里禿)

아리독(阿里禿)은 “깨끗한, 성스러운”이란 뜻을 지닌 아릭토(arigtu)ᠠᠷᠢᠭᠲᠤ의 음역이다. 그 역시 카다안(Khada'an, 哈丹)의 반란에 가담한 동방왕가의 후예라고 보여진다.²⁸⁾ 그가 유배된 잉분도(荊盆島)는 오늘날 홍도(洪島)로 간주되고 있다. 그는 이곳에서 일생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3.1.8. 탑야속(塔也速)

탑야속(塔也速)은 몽골어로“끈”을 의미하는 다이손(dayisu)ᠳᠠᠢᠰᠢᠨ의 음역이라고 보여지지만 확실치는 않다. 이 인물 역시 카다안(Khada'an)의 반란에 가담한 동방왕가의 장군들이라고 보여진다.²⁹⁾ 그는 백령도에 유배되

28) 아리독(阿里禿)는 『고려사』에 “(충렬왕 1292년 3월)元流哈丹下, 阿里禿大王于荊盆島”처럼 기록되어 있다.

29) 탑야속(塔也速)은 『고려사』에 “(충렬왕 1292년 4월)元流賊黨塔也速于白翎島, 闍吉出于大靑島, 帖亦速于烏也島”처럼 기록되어 있다.

었으며 그곳에서 일생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3.1.9. 도길출(圖吉出)

도길출(圖吉出)은 몽골어로 “비밀”과 관련을 가진 칙지(chigji)чигж) 계열의 단어인 칙지추(Chigjigchü)의 음역이라고 보여지지만 뜻은 확실하게 알 수 없다. 이 인물 역시 카다안(Khada'an)의 반란에 가담한 동방왕가의 장군들이라고 보여진다. 그는 대청도에 유배되었으며 그곳에서 일생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3.1.10. 첩역속(帖亦速)

첩역속(帖亦速)은 몽골어로 “갈대”를 뜻하는 데레스(deresü-n)дэрс[ә н])의 음역이라고 보여지지만 확실치는 않다. 이 인물 역시 카다안(Khada'an)의 반란에 가담한 동방왕가의 장군들이라고 보여진다. 그는 대청도에 유배되었으며 그곳에서 일생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3.1.11, 12. 이름 불명

1292년 4월 각각 영흥도(靈興島)와 조월도(祖月島)로 유배된 이름불명의 2명의 대왕은 역시 카다안(Khada'an)의 반란에 가담한 동방왕가의 후예들이라고 보여진다.³⁰⁾ 이들의 이름이 명기되지 않은 이유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대왕의 이름을 모른다는 그 자체가 고려측이 코빌라이계열의 인물들과는 매우 친밀한 대신 동방계열의 왕가들과는 별로 친소관계가 없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들 역시 유배 섬에서 일생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영흥도(靈興島)는 남양도(南陽島)로 비정되고 있으며 조월도(祖月島)는 아직

30) 『고려사』에는 이 2 대왕에 대한 기록이 “(충렬왕 1292년 4월)元流哈丹下大王于靈興・祖月二島”처럼 수록되어 있다.

고증이 되지 않고 있다.

3.1.13. 미리불화(迷里不花)

미리불화(迷里不花)는 몽골어로 “얼룩소”를 뜻하는 미리엔-보카(miriyen bukha) <мирээн бүх>의 음역이다. 그는 무종(武宗) 카이산(Khaisan, 1307.5~1311.1)의 사후 대칸위를 노리는 카이산의 동생 즉 이후의 인종(仁宗) 아요르-바리바드(Ayur-Baribad, 1311.3~1320.1)에 의해 삼보노(三寶奴)³¹⁾의 당으로 몰려 고려의 섬으로 유배되었다.³²⁾ 그가 유배된 오안도(烏安島)는 아직 고증이 되지 않고 있다. 그는 이곳에서 일생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3.1.14. 아목가(阿木哥)

아목가(阿木哥)는 아모카(Amukha)의 음역으로 그 뜻은 아직 고증되지 않고 있다. 아모카는 코빌라이칸의 황태자인 친킴(Chinkim, 眞金)의 둘째

31) 삼보노(三寶奴, ?~1311)는 1307년 무종이 즉위할 때 한림학사승지(翰林學士承旨)에 있었다. 1308년 발해공(渤海公)을 수여받고 우승상이 되었다. 1309년 상서성(尙書省)을 세워 평장정사(平章政事)를 맡았다. 그리고 곧 좌승상에 올라 개혁정치를 시행하여 다르칸(Darkhan, 答刺罕)이란 칭호와 함께 청주(淸州, 지금의 하북성 淸縣)도 식읍(食邑)으로 받았다. 또 봉호(封號)도 초국공(楚國公)으로 개봉(改封)되어 상주로(常州路)를 분지(分地)로 받았다. 무종이 쇠약해 지자 큰 아들인 코사라를 황제로 세우고자 노력했다. 그로 인해 대칸을 꿈꾸는 아요르-바리바드와 첨예하게 대립했으며 1311년 무종이 죽자 아요르-바리바드 일파에 의해 반란을 도모했다는 죄목으로 처형되었다.

32) 미리불화(迷里不花)는 『고려사』에 “(충선왕 1311년 2월)元流平章迷里不花于烏安島,丞相三寶奴之儻也”처럼 기록되어 있다. 『원사』에는 이 사건이 “[至大]四年春,正月庚辰,武宗崩,壬午,罷尙書省,以丞相脫虎脫·三寶奴·平章樂實·右丞保八·左丞忙哥帖木兒·參政王巖,變亂舊章,流毒百姓,命中書右丞相塔思不花·知樞密院事鐵木兒不花等參鞠,丙戌,脫虎脫·三寶奴·樂實·保八·王巖伏誅,忙哥帖木兒杖流海南”처럼 기록되어 있다.

아들 다르마-발라(Darma-Bala, 答刺麻八剌)의 큰아들이다. 즉 무종과 인종의 형에 해당하지만 무종과 인종과는 달리 정후(正后)인 다기(Dagi, 答己) 소생은 아니었다. 그가 동생인 인종에 의해 1317년 탐라와 대청도에 유배된 이유는 당시 인종의 후계자를 가리는 황태자 선정에서 원칙대로 무종 카이산의 아들인 코사라를 지지했고 인종의 아들인 소디팔라(Suddhipala)의 선정을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그로 인해 유배도 영종(英宗) 소디팔라(Suddhipala, 1320.1~1323.9)의 피살 이후에 끝났다.³³⁾

3.1.15. 패자(孝刺)

패자(孝刺)는 패라(孝羅)와 같은 음사(音寫)로서 “갈색”을 뜻하는 몽골어 보로(Boro)의 음역이다. 이 인물은 태자(太子)라는 명칭과 유배시기로 미루어 인종의 아들이지만 정후 소생이 아닌 아들로 생각된다.³⁴⁾ 진왕(晉王) 감마라(Gamara, 甘麻剌)의 후예인 태정제(泰定帝) 예순-테무르(Yesün-Temür, 1323.9~1328.7)는 1323년 8월 5일에 발생한 남파지변(南坡之變)으로 영종을 살해하고 대칸에 오른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등극 후 남파지변에 가담한 인물들을 가혹하게 숙청했는데 이 때 인종의 후예도 유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³⁵⁾ 대청도에 유배되어 있던 패자태자(孝刺太子)

33) 아목가(阿木哥)의 유배는 『고려사』에 “(충숙왕 1317년 1월)元流魏王阿木哥于耽羅, 尋移大靑島”, “(충숙왕 1318년 7월)元遣吏部尙書卜顏·必闌赤賣驢來責問慰接魏王及耽羅叛狀”, “(충숙왕 1323년 11월)帝召還魏王阿木哥”처럼 기록되어 있다.

34) 인종의 정후 소생 아들에는 영종과 오르도스-보카(Orudusus-Bukha) Ордоc-Byx, 兀都思不花)가 있으며 영종은 후사가 없다. 필자는 『고려사』에 등장하는 패자(孝刺)가 1317년 인종으로부터 기왕(冀王) 칭호를 받은 아리크-버케(Arig-Böke)의 후예인 보로(孝羅)와 음가가 같고 또 그가 1323년 8월의 남파지변에도 참가했으며 이로 인해 1323년 12월 태정제에 의해 섬으로 유배된 점 때문에 패자(孝刺)가 패라(孝羅)일 가능성도 생각했지만 제왕(諸王)과 태자는 성격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인종의 아들로 추정했다.

35) 『원사』에는 남파지변의 시작과 처리가 “月癸亥, 車駕南還, 駐蹕南坡, 是夕, 禦史大

는 명종 코사라의 즉위 후 본국으로 돌아갔다.³⁶⁾

3.1.16. 타환첩목이(妥懽帖睦爾)

타환첩목이(妥懽帖睦爾)는 토곤-테무르(Togun-Temür)의 음역으로 “솔의 철”이란 뜻의 몽골어이다. 토곤-테무르는 명종(明宗) 코살라(Khusala, 1329.1~1329.8)의 아들로 1320년에 태어났다.³⁷⁾ 그는 권력 계승 투쟁의 여파로 11살 때인 1330년 7월 고려의 서해안인 대청도에 유배되어 1년 5개월을 그곳에서 보냈다.³⁸⁾ 토곤-테무르-카간(Togun-Temür Khagan, 1333~1370)³⁹⁾의 황후가 바로 그 유명한 기황후 즉 고려 고양

夫鐵失·知樞密院事也先帖木兒·大司農失禿兒·前平章政事赤斤鐵木兒·前雲南行省平章政事完者·鐵木迭兒子前治書侍禦史鎖南·鐵失弟宣徽使鎖南·典瑞院使脫火赤·樞密院副使阿散·僉書樞密院事章台·衛士禿滿及諸王按梯不花·孛羅·月魯鐵木兒·曲呂不花·兀魯思不花等謀逆，以鐵失所領阿速衛兵爲外應，鐵失·赤斤鐵木兒殺丞相拜住，遂弑帝於行帳…流諸王月魯鐵木兒於雲南，按梯不花於海南，曲呂不花於奴兒幹，孛羅及兀魯思不花於海島，並坐與鐵失等逆謀”처럼 기록되어 있다.

- 36) 『고려사』에는 폐자태자(孛刺太子)에 대한 기록이 “(충숙왕 1324년 1월)帝流孛刺太子于我大靑島”, “(충숙왕 1329년 3월)帝召還孛刺太子”처럼 수록되어 있다.
- 37) 참고로 몽골의 민간 구전문학에서 순제(順帝) 토곤-테무르(Togun-Temür, 1320생, 1333.6~1370.4)의 어머니 즉 명종 코살라(Khusala)의 부인이 고려인이란 설화가 구전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카이산의 비빈인 고려여인 다마시리-카톤(Damashiri-Khatun)에 대한 기록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토곤-테무르칸의 어머니 논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당시 권력투쟁과 계승자들의 잇따른 피살사건으로 인해 어머니의 출자에 대해 주변인물(유모 등)에 의해 고의로 꾸며진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또 실제 그를 융립한 여인이 다마시리-카톤 계열의 인물과 연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문종의 황후 보다시리-카톤(Buddha-Shiri Khatun)이었기 때문이다. 토곤-테무르칸의 어머니(고려인) 논쟁은 진실과 은폐가 서로 엮여져 만들어진 혼합물이라 생각한다.
- 38) 『고려사』에는 토곤-테무르의 유배에 관한 기록이 “(충혜왕 1330년 7월)元流明宗太子妥懽帖睦爾于我大靑島，年十一歲”，“(충혜왕 1331년 12월)元遣樞密院使尹受困·中丞厥干等召還妥懽帖睦爾太子”처럼 수록되어 있다.
- 39) 토곤-테무르-카간은 사후 명나라에서는 순제(順帝), 북원에서는 혜종(惠宗)이라

(高陽) 출신의 여인인 열제이투-코독토-카툰(Öljeitü-Khutugtu-Khatun)이다. 토곤-테무르가 유배된 대청도에는 아직도 그와 삼각산(343m)에 얽힌 전설이 흐르고 있다.

3.1.17. 패란해(孛蘭奚)

패란해(孛蘭奚)는 몽골어로 “맞추어보다”나 “결산”이란 뜻을 지닌 발랑사(balangsa)баланс의 음역이라고 추정되지만 확실치는 않다. 이 인물의 행적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으며⁴⁰⁾ 탐라에서 일생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3.1.18. 박박태자(拍拍太子)

박박태자(拍拍太子)는 『명사』에 위순왕자(威順王子) 백백(伯伯)으로 기록되어 있다. 박박태자는 몽골어로 “수염이 덥수룩한 태자”라는 뜻을 지닌 바바이-타이시(Babai-Tayishi)의 음역으로 보여진다. 『명사』에는 “1382년 여름 4월 갑신에 원나라 양왕 바자라-바밀(Bajara-Barmil, 把匝刺瓦爾密) 및 위순왕자(威順王子) 백백(伯伯) 등 가족들을 탐라에 유배보냈다”⁴¹⁾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양왕 바자라-바밀은 1381년 12월 명군에 패해 보녕(普寧)에서 자살했다.

추증되었는데 이는 서로간의 입장차이 때문이다. 명나라에서 순제라고 시호를 붙인 이유는 주원장의 철학파도 관계가 깊다. 주원장은 북송의 이학가(理學家) 소옹(邵雍)이 창립한 선천학(先天學)을 신봉하고 있는 인물이다. 선천학이란 일체의 사물에는 모두 일정한 형상과 수량이 있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면 자연계 및 사회현상을 해석할 수 있다는 철학사상이다. 이 철학사상은 역사에서 숙명론과 순환론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주원장은 토곤-테무르가 대도로부터 도망친 것을 황제로서의 천명이 다한 것으로 인식하여 그의 시호를 순제라 했던 것이다.

40) 패란해(孛蘭奚)는 『고려사』에“(충혜왕 1340년 2월)元流孛蘭奚大王于耽羅”처럼 기록되어 있다.

41) 『명사』〈太祖紀,三〉:十五年(1382),夏四月甲申,遷元梁王把匝刺瓦兒密及威順王子伯伯等家屬於耽羅.

『고려사』에는 박박태자(拍拍太子)의 가족에 대해 아들인 육십노(六十奴)와 환관인 복니(卜尼, Burni) 이외에 구체적인 기록이 없지만 박박태자는 1389년 주원장을 부름을 받아 아들 및 환관을 데리고 1390년 주원장을 만난 것으로 나타난다. 그는 명나라에서 탐라로 돌아온 후 1390년 10월에 세상을 떠났다.⁴²⁾

3.1.19. 육십노(六十奴)

육십노(六十奴)는 숫자와 비천함을 섞어 장수를 바라는 몽골습속에서 온 명명법이다. 육십은 몽골어로 자란(jira-n)ᄃᆞᆫ[аң]이라고 부르며, 노(奴)는 노예를 의미하는 보올(bogul)ᄃᆞᆫ이나 모콜리(mukhuli)ᄃᆞᆫ 등 경우에 따라 붙는 명칭이 다르다.⁴³⁾ 육십노 역시 탐라에서 일생을 마쳤다.

42) 『고려사』에는 박박태자(拍拍太子)에 대한 기록이 “(공양왕 1389년 11월)帝召還拍拍太子及子六十奴及火者卜尼, 初帝討雲南, 流拍拍太子及子六十奴于濟州”, “(공양왕 1390년 4월)甲戌六十奴來自濟州, 乙亥命贊成事鄭夢周宴慰六十奴曰, 耽羅產馬聞于上國久矣, 吾在耽羅已五六年, 馬之良者甚少, 故今朝京師未得一馬以贊, 夢周以啓王曰, 上國屢使我獻馬以有耽羅耳, 六十奴所言如此, 則我國良馬之有無, 不待聞而達矣…辛巳王御正殿宴六十奴…己丑六十奴及火者卜尼如京師”, “(공양왕 1390년 10월)六十奴還自京師, 復歸于濟州, 踰一年而死”처럼 수록되어 있다.

43) 몽골어에서 노예를 뜻하는 단어는 위의 것 이외에도 보올치(bogulchi)ᄃᆞᆫ, 보히(boki)ᄃᆞᆫ: 3대째의 노예), 보오르즈(bugurji)ᄃᆞᆫ: 2대째의 노예), 베스레-훈(besereg kümün)ᄃᆞᆫ хүн: 1대 노예의 자식), 하를라크(kharlug)ᄃᆞᆫ, 하를리크(kharalig)ᄃᆞᆫ, 오나간-보올(unag-an bogul)ᄃᆞᆫ: 대대로 예속 노예), 함즐라가(khamjilg-a)ᄃᆞᆫ хамжлага: 제후들에게 예속된 노예) 등처럼 많이 나타난다. 또 하인을 뜻하는 몽골어로는 자르드슨(jarudasun)ᄃᆞᆫ, 자르츠(jarucha)ᄃᆞᆫ, 소이본(soyibun)ᄃᆞᆫ, 바를로크(barlug)ᄃᆞᆫ, 자르치(jarchi)ᄃᆞᆫ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소이본은 고승을 수행하는 하인을 말하며 자르치는 보고를 담당하는 하인을 지칭한다.

3.1.20. 복니(卜尼, Burni)

복니(卜尼)는 중세 몽골어에 등장하는 보르니(Burni)의 음역이라고 보여지지만 그 뜻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는 화자(火者)라는 명칭으로 미루어⁴⁴⁾ 박박태자를 모시는 환관이라고 보여진다. 그 역시 양왕의 가족과 함께 탐라에서 일생을 마쳤다.

3.1.21. 애안첩목아(愛顔帖木兒)

애안첩목아(愛顔帖木兒)는 몽골어로 “여행하는 철”이란 뜻을 지니 아얀-테무르(Ayan-Temür) аян төмөр)의 음역이다. 양왕의 후손인 그는 1392년 3월 기타의 3명과 함께 탐라에 유배되어 박박태자의 친속들과 함께 일생을 마쳤다.⁴⁵⁾

곤명(昆明)에 중심을 둔 양왕의 후예들이 탐라에 들어온 후 탐라의 3대 성씨인 양(良)씨는 모두 양왕의 성을 양(梁)씨로 양씨로 바뀌어 졌다. 그러면 여기에서 양왕의 계보를 살펴보도록 하자.

코빌라이칸은 1290년 감마라(Gamara, 甘麻剌)를 양왕(梁王)으로 봉해 운남에 출진시킨 뒤 1292년에 진왕(晉王)으로 봉호를 승격시켰다. 그 대신

44) 『고려사』에 기록된 화자(火者)는 고자 즉 환관(宦官)을 지칭하는 말이다. 고자는 몽골어로 아스만-훈(asaman kümün)асман хүн)이라 한다. 고자(火者)는 Khojā(P.Khvāja)라는 힌디어의 음역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옥스퍼드출판의 《힌디·영사전》에 Khojā(P.Khvāja)에 대한 설명이 1.a eunuch[ju:nək]: 거세된 남자, 宦官, 허약한 사람, 무기력한 사내. 2. 서부인도 무슬림 공동체의 이름(name of a west Indian Muslim community)으로 설명되어 있다. 최남선의 『고사통(古事通)』에도 火者에 대한 비슷한 견해가 실려 있는데 국어학자 강현규는 이 단어[火者(宦者)]를 “힌두어 Khojoh를 번역한 것. 인도 동부의 벵골지방은 주변 나라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거세하여 수출하였는데 이것이 명칭과 함께 남중국 방면으로 수입되어 차차 일반화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姜憲圭, 『한국어 어원연구사』서울, 1988, p.151).

45) 『고려사』에는 애안첩목아(愛顔帖木兒)에 대한 기록이 “(공양왕 1392년 3월)帝置前元梁王子孫愛顔帖木兒等四人于耽羅, 使與拍拍太子等完聚居住”처럼 수록되어 있다.

감마라의 둘째아들인 송산(松山)이 1293년에 양왕으로 봉해져 운남으로 갔다. 송산의 아들인 운남왕 왕선(王禪)은 1324년 양왕으로 봉해졌다. 그러나 왕선은 1328년 권신인 엘-테무르(EI-Temür, 燕帖木兒)에게 유림(楡林)에서 피살되었다. 그의 피살 후 코빌라이칸의 아들 후게치(Hügechi, 忽哥赤)의 손자인 아로(Aru, 阿魯)의 아들 보로(Boro, 孛羅)가 운남왕으로 봉해졌다가 1347년 이후 양왕으로 올려졌다. 그리고 보로의 아들인 바자라-바밀(Bajara-Barmil, 把匝剌瓦爾密)이 그 위를 이었다. 주원장은 1372년을 전후하여 왕위(王緯), 오운(吳雲) 등 사신을 파견하여 투항을 권했지만 그는 사신들을 모두 살해하고 투항을 거부했다. 이에 주원장은 1381년 부우덕(傅友德), 목영(沐英), 남옥(藍玉) 등을 파견하여 곤명(昆明)에 근거지를 둔 양왕을 공격했다. 양왕 바자라-바밀은 1381년 12월 명군에 패해 보녕(普寧)에서 자살했으며 사로잡힌 그의 가족들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주원장에 의해 탐라로 유배되었다.

그런데 『원사』에는 또 하나의 양왕(梁王)이 출현하고 있다. 원나라는 운남과의 연락이 두절된 1362년 전후 하남(河南)에 근거지를 둔 아르곤(Argun, 阿魯渾)을 여양왕(汝陽王)으로 봉했다가 후에 양왕(梁王)으로 봉호를 높였다. 『원사』〈차강-테무르(察罕帖木兒, Chagan Temür)전〉에는 그의 가계가 나이만다이(乃蠻台, Naimandai) → 키케데이(闊闊台, Kökedei) → 아르곤(阿魯渾, Argun) → 차강-테무르(察罕帖木兒, Chagan Temür)로 이어져 있다. 그러나 아르곤(Argun)은 1368년 4월 주원장에 항복했다. 나이만다이(Naimandai)는 『원사』에 북쪽 출신(系出北庭)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어 제왕가(諸王家)가 아닌 유역한 대신가(大臣家)의 후예로 보여진다. 따라서 1392년 제주도로 유배온 양왕의 후예 아얀-테무르는 『고려사』의 기록에서도 일부 나타나듯이 바자라-바밀의 후예이자 바바이-타이시의 일족이 분명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기록 분석에서도 나타나듯이 고려의 서해안 섬은 백령도에서 탐라

에 이르기까지 몽골귀족의 귀양벨트로 나타난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하를 가리지 않고 마음껏 여행의 자유를 누린 시대는 원나라와 일가처럼 행동했던 고려시대밖에 없었다. 그래서였을까. 고려와 원은 영토가 서로 개방되었다고도 해도 좋을 정도로 유배지까지도 공유했다. 아마 서해의 섬들에 숨겨진 몽골귀족들의 눈물을 더 세밀히 연구한다면 초원의 바람과 바다의 바람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다가올지 모른다.

3.2. 울릉도와 코빌라이칸의 섬 탐라

몽골의 흔적이 남아 있는 섬들은 위에 열거한 귀양지를 제외하고 크게 강화도, 진도, 울릉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대원제국과 고려에서 가장 민감했고 또 중요시되었던 섬은 탐라였다. 사실 탐라와 몽골, 고려의 관계고찰은 현재 한국학계에 던져진 하나의 과제와 같다. 그런 거대한 과제인 만큼 여기서 어설픔게 탐라의 역사를 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코빌라이칸의 섬 탐라의 연구 필요성에 대한 것을 간략히 제기하고 울릉도와 몽골에 대한 사연을 언급하는 것으로 마치고자 한다.

탐라의 연구 필요성에 대해서는 탐라가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막말로 고려시대의 탐라로 돌아간 듯 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떠한 모습을 띠고 국내외에 나서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무래도 탐라가 지닌 역사문화유산의 발굴 및 관광자원화 사업에 관건이 있을 것이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화를 꿈꾸고 있다. 그러나 국제화란 구호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화를 뒷받침해 주는 로고 즉 누구나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상징이 필요하다.

탐라의 역사행로와 유사한 것이 대마도이다. 그러면 탐라와 대마도의 역

사를 비교하면 무엇이 보일까. 그것은 하나밖에 없다. 즉 탐라는 1270년대 동아시아의 역사가 일시 탐라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비해 대마도는 그러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 보면 코빌라이칸의 야망과 꿈이 보인다. 그것을 상징해 주는 것이 탐라의 조랑말이다.⁴⁶⁾ 코빌라이칸의 야망을 나타내주는 조랑말은 이후 탐라의 상징이 되었다.

코빌라이칸의 등장 이전까지 탐라와 대마도의 길은 그 종주국이 고려와 일본이라는 점에 이외에 큰 차이가 없다. 탐라는 몽골 이전까지 고려의 영토가 아닌 종주의 관계였다.⁴⁷⁾ 그러나 몽골이 탐라를 탐내는 순간부터 사정이 달라졌다. 몽골은 말의 목장 및 해양의 전초기지로서 탐라를 주시했다. 또 종주권을 포기할 수 없었던 고려도 탐라를 주목했다. 여기에 불을 붙인 것이 삼별초였다. 이것에서 바로 탐라의 행로와 그 이웃한 대마도 행로의 차이가 발생했다.

탐라의 입장에서 몽골이나 고려를 바라보면 무척 억울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들로 인해 자치가 취소되고 독립성이 소멸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이방인의 지배 시기라 해도 몽골시대의 탐라, 고려 말의 탐라, 조선시대의 탐라는 서로 너무나 달랐다. 몽골이 공동체를 이루고 성주를 용납했던 시기라고 한다면 그 이후의 시기는 오직 착취와 비탄의 절규만이 있었을 뿐이다. 막말로 탐라가 독자성을 포기한 채 서로 다른 세력들과 접촉을 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아마 연합조건으로 제시된 미래에 대한

46) 오늘날 탱크와 미사일이 결합된 전투마인 탐라의 조랑말이 바로 일본에 카미카제(神風)라는 역사용어를 만들어낸 원천이다. 그들이 일본에 상륙하는 순간 일본의 운명도 조랑말의 갈기에 나부끼는 바람처럼 결정될 것이다. 조랑말의 의미와 주법에 대해서는 줄지, 『유라시아 초원제국의 역사와 민속』서울, 2001, pp.480-495 및 줄고, 〈제주 습속 중의 몽골적 요소-조랑말의 뜻과 제주방언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제주도연구』28, 2005, pp.221-229를 참조.

47) 이에 대해서는 노명호, 〈10~12세기 탐라와 고려국가〉『제주도연구』28, 2005를 참조.

꿈이 아닐까. 몽골과 고려, 조선이 제주에 남긴 꿈은 무엇일까.

몽골제국에 대한 이해는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즉 긍정보다는 부정이 강하다. 그러나 몽골과 고려, 조선이 제주에 남긴 흔적을 서로 비교해 보라. 누가 과연 탐라를 위했고 또 탐라를 위해 무엇을 해주었는지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자치가 취소되고 독립성이 소멸된 조선시대의 탐라에 무슨 꿈이 있었는지 말해 달라.

사실 한국에서 가장 몽골학이 필요한 곳이 탐라이다. 남겨진 몽골사람, 그들의 언어, 습속 등이 탐라의 사람들과 어떻게 혼합되어 변해갔는지 고찰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연구계획과 실행이 필요하다. 아래 흥가 사라진 탐라방언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탐라에서 벌어진 역사를 살리고 죽이고 또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오늘날 탐라인의 뜻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해안에 외로이 떠있는 울릉도는 참으로 아름답고 신비로운 섬이다. 『고려사』에는 동해안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제와 같은 섬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다음과 같은 말이다.

혹은 말하기를 우산도(于山島)와 무릉도(武陵島)는 본래 두 섬으로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바람이 불고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⁴⁸⁾

울릉도를 갔다고 온 사람들은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 울릉도 정상에서 동남을 바라보면 정말 독도가 보인다. 주도와 부속도서를 따지는 기준이 보이는 것인가 안 보이는 것인가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알 것이다. 자 그러면 몽골과 울릉도가 어떤 사연을 맺고 있는지 따라가 보기로 하자.

우산국(于山國)이라 불리는 울릉도는 고구려나 신라 때부터 잘 알려진 섬

48) 『고려사』〈지리지〉:一云, 于山・武陵, 本二島, 相距不遠, 風日清明, 則可望見.

이다. 신라 지증왕(智證王) 12년(511)에 최초로 우리에게 기부한 울릉도는 고려 태조 13년(930)에도 백길(白吉)과 토두(土豆)가 사신으로 와 방물을 바쳤다.⁴⁹⁾ 그러나 울릉도는 1018년 동북 여진의 침략을 받아 백성들이 여진으로 잡혀가거나 혹은 고려의 내지로 도망치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울릉도의 생업도 황폐화 되었다.⁵⁰⁾ 당시 여진의 해적이 얼마나 극성을 부렸는가는 고려가 1046년에 동해에서부터 남해에 이르기까지 바닷가를 끼고 내려가며 성보(城堡)와 농장(農場)을 쌓아서 해적이 뚫고 들어오는 길을 막았다는 데에서도⁵¹⁾ 잘 입증되고 있다.

울릉도 사람으로 여진에 잡혀갔다가 탈출한 사람,⁵²⁾ 내지에 들어온 사람,⁵³⁾ 탐험가⁵⁴⁾ 등을 통해 울릉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고려는 의종 11년(1157)에 명주도감창전중내급사(溟州道監倉殿中內給事) 김유립(金柔立)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사람이 살 수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는 돌아와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올렸다.

섬 가운데 큰 산이 있어 산정으로부터 동쪽으로 바다까지 1만여 보가 되고, 서쪽으로는 1만 3천여 보가 되고, 남쪽으로는 1만 5천여 보가 되며 북쪽으로는 8천여 보가 된다. 촌락의 터가 7개소가 있고, 석불·철불·석탑이 있으며, 자호(紫胡)·호본(蒿本)·석남초(石南草)가 많이 있으나 암석이 많아 살 수 없다.⁵⁵⁾

49) 『고려사』〈태조 930년 추(秋) 8월〉: 丙午, 芋陵島遣白吉·土豆貢方物, 拜白吉爲正位, 土豆爲正朝.

50) 『고려사』〈현종 1018년 11월〉: 以于山國被東北女眞所寇, 廢農業, 遣李元龜賜農器.

51) 『고려사』〈병지〉: 文宗卽位, 遣兵部郎中金瓊, 自東海至南海, 築沿邊城堡·農場, 以扼海賊之衝.

52) 『고려사』〈현종 1019년 秋七月〉: 于山國民戶曾被女眞虜掠來奔者, 悉令歸之.

53) 『고려사』〈현종 1022년 秋七月〉: 都兵馬使奏, 于山國民被女眞虜掠逃來者, 處之禮州, 官給資糧, 永爲編戶, 從之.

54) 『고려사』〈인종 1141년 추(秋) 7월〉: 溟州道監倉使李陽實, 遣人, 入蔚陵島, 取菓核木葉異常者以獻.

55) 『고려사』〈지리지〉: 島中有大山, 從山頂向東行至海, 一萬余步, 向西行一萬三千余

그의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울릉도는 여전히 매력적인 섬이었다. 특히 몽골의 침략이 본격화 되고 이에 대항하여 고려가 입도작전(入島作戰)으로 대항하자 울릉도도 안전지대로서 각광을 받았다.⁵⁶⁾ 또 이를 통해 울릉도에 쓸 만한 목재가 많다는 사실도 소문으로 번져갔다. 이러한 소문은 입에 입을 거쳐 원나라에도 알려졌다.

이에 원나라는 1272년 3월 이추(李樞)를 파견하여 그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원나라의 궁실(宮室)을 짓는 데 필요한 목재를 징발하고자 했다. 참으로 엄청난 시도지만 1273년 12월 이추는 고려 첨서추밀원사(簽書樞密院事) 허공(許琜)과 함께 울릉도로 갔다.⁵⁷⁾ 그러자 위기를 느낀 고려가 직접 황제에게 직소하여 울릉도 목재의 징발을 막는데 성공했고⁵⁸⁾ 할 일이 사라진 이추는 원나라로 돌아갔다.⁵⁹⁾ 하마터면 울릉도의 나무들이 대도의 궁전에 자리 잡았을지도 모를 이 사건은 동방의 조그만 섬인 울릉도의 존재를 몽골인들에게 각인시켰던 좋은 예일 것이다. 고려시대의 울릉도는 충목왕(忠穆王) 때인 1346년에 울릉도인이 와서 조정에 인사드렸다는 기록으로 보아⁶⁰⁾ 여전히 소수의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는 터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步, 向南行一萬五千余步, 向北行八千余步, 有村落基址七所, 有石佛・鐵鍾・石塔多, 生柴胡・蒿本・石南草, 然多岩石, 民不可居.

56) 이를 간접적으로 입증해 주는 기록이 『고려사』에 “(고종 1246년 5월)甲申에 國學學諭인 權衡允과 及第 史挺純으로 蔚陵島安撫使를 삼았다(甲申, 以國學學諭權衡允及第史挺純爲蔚陵島安撫使)”처럼 수록되어 있다.

57) 『고려사』〈원종 1273년 2월〉: 以簽書樞密院事許琜爲蔚陵島斫木使, 伴李樞以行.

58) 『고려사』〈원종 1273년 2월〉: 王奏請罷蔚陵斫木.

59) 아마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울릉도의 나무는 바닷길을 따라 천진(天津)으로 운반되고 그곳에서 다시 대도(大都)로 이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0) 『고려사』〈충목왕 1346년 3월〉: 戊申, 東界芋陵島人來朝.

맺는 말

이상 몽골과 바다에 관련된 것을 간략하게 기술하여 보았다. 이것을 다시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몽골은 유목민족이지만 바이칼호수나 헵스겔호, 헐룬호 등 큰 호수를 통해 큰물을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그리고 언어학적 분석에서도 나타났다지만 그들도 고대부터 도강용 배를 사용하고 있고 더 나아가 범선의 존재도 알고 있었다고 보여 진다. 즉 그들도 바닷가 주변 민족 못지않게 바다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이러한 인식은 16세기 중반 티베트불교와 접촉하면서 티베트불교의 지도자에게 바다와 같이 깊고 큰 라마라는 달라이라마라는 칭호를 선사한 것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몽골의 바다에 대한 인식은 그들이 세계 제국의 길을 걸으면서 유라시아 초원루트와 바다를 잇는 세계 순환 무역루트를 구축하려는 시도까지 발전했다. 물론 이러한 일면에는 아랍이나 페르시아 등 이슬람서역상인의 방조가 절대적이었다. 그러나 이것을 실제 실행한 것은 유럽이나 페르시아, 중원 등 정착국가 아닌 초원의 유목국가 몽골이라는 데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상징이 바로 대도이다.

대몽골제국은 칭기스칸 때부터 고려와 형제의 맹을 맺었다. 코빌라이칸의 장례에 몽골인과 고려인만이 자유스럽게 들랑거렸다는 기록도 예사스러운 것은 아니다. 실제 몽골은 형제처럼 고려를 대했다. 오늘날의 우리가 당시의 몽골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는 몰라도 각종 역사 기록은 그것을 말없이 입증해 주고 있다. 그 사례의 하나가 유배지의 공유였다. 초원의 제국 몽골은 고려의 서해안 섬들을 유배지로 선호했다. 유배된 자들도 예사스러운 인물들이 아니다. 황제의 아들로부터 미래의 황제, 코빌라이칸의 야망에 도전했던 장군 등 황금씨족 출신의 인물들이 서해안의 섬에서 출렁이는 파

도와 낙조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더러는 돌아가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비운을 안고 그곳에서 잠들었다.

탐라는 코빌라이칸의 꿈과 야망이 깃들여 있는 곳이다. 오늘날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갈망하는 국제화의 상징은 멀리 있지 않다. 탐라가 코빌라이의 섬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콜럼버스가 가장 만나기를 갈망했던 인물이 누구인가. 바로 코빌라이칸이었다. 탐라인들이 코빌라이칸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진정 탐라의 새로운 시대가 전개될지도 모른다. 주원장까지도 대원제국의 멸망 후 가장 극렬하게 저항했던 윤남의 양왕 가족들을 몽골의 향기가 가장 남아 있는 탐라로 유배하는 배려를 취했다.

어떠한 시대를 막론하고 교류에는 역사적으로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러나 애초부터 어떠한 비전에 바탕을 두고 그것을 서로가 공유할 경우 밝고 긍정적인 면이 확실하게 부각되는 것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바다와 같은 마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다. 바로 모두가 숨기고 싶어했던 진실, 봉(封)해진 역사의 상자를 두려움 없이 열면서 그것을 미래를 비전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 바로 바다와 같은 마음이다. 특히 탐라 사람들은 몽골을 인식하는 방법에 따라 탐라가 서로에게 배반의 섬이 될 수도 있고 미래의 꿈을 위해 함께 나가는 서약의 섬이 될 수도 있다.

e-mail: altanoboo@hanmail.net

접수일 : 2008년 12월 30일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일 : 2009년 01월 15일

게재결정일 : 2009년 02월 05일